

* 사진 및 글의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동차로 여행한 147일간의 유럽 이야기

1 권

네이버 블로그 '담장위 고양이'

<http://noraneko77.blog.me/>

목 차

머릿말	1
여행준비	2
낯설고도 친근한 터키	37
정열의 나라, 스페인	91
따뜻한 남프랑스와 모나코	147
역사가 숨 쉬는 이탈리아	163
아름다운 풍경의 크로아티아	183
알프스의 끝자락, 슬로베니아	205
잘츠카머구트, 경쾌한 오스트리아	213
헤어진 연인처럼 아련한, 체코	225
마음마저 추웠던 폴란드	238
분단의 역사를 간직한 독일	245
고흐를 찾아서, 네덜란드	254
정갈하게 스쳐간 벨기에	269
프랑스, 파리에서의 한 달	276
순박하고 친절한 아일랜드	342
에든버러 축제! 스코틀랜드	359
박물관을 누비다, 영국	376

머릿말

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일흔이 넘어, 직장에서 은퇴하고 이제 삶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준비를 할 무렵...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나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에게 젊고 행복했던 때로 시간을 돌려, 가족과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다만 그 대가로 엄청난 무언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 기회에 응하겠는가?”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저는 그 대가가 무엇이 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제 스스로 감내 해야하는 성격의 무엇이라면) 주저 없이 ‘예’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은 그런 꿈을 안고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와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을 한가득 새기고 돌아오는 것이 이번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저의 삼십대의 마지막..
그 행복했던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여행 준비

여행기간과 비용을 산정하기

여행기간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지, 아마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이는 열흘, 혹은 보름을, 또 다른 이는 한 달을, 혹은 일년을 여행기간으로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미리 염두하고 그만큼의 비용을 준비해야 할텐데, 개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권 : 100만원~150만원 × 인원수
- 숙박비 : 10만원 × 체류일
- 식비 : 2만원 × 체류일 × 인원수
- 교통비(차량 임차, 지하철 등) 및 잡비 : 5만원 × 체류일

정답은 아닙니다. 여행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아이를 동반한 3인 이었기에 대게 저렴한 호텔의 2인실에 머물렀고, 식비는 가능한 절약하는 여행이었기에 위와 같은 공식이 나왔습니다. 만약 식도락 여행이라면 식비에 대한 지출을 높게 잡으셔야 할테고, 저렴한 호스텔에 투숙할

생각이라면 숙박비에서 무척 절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위 공식을 대입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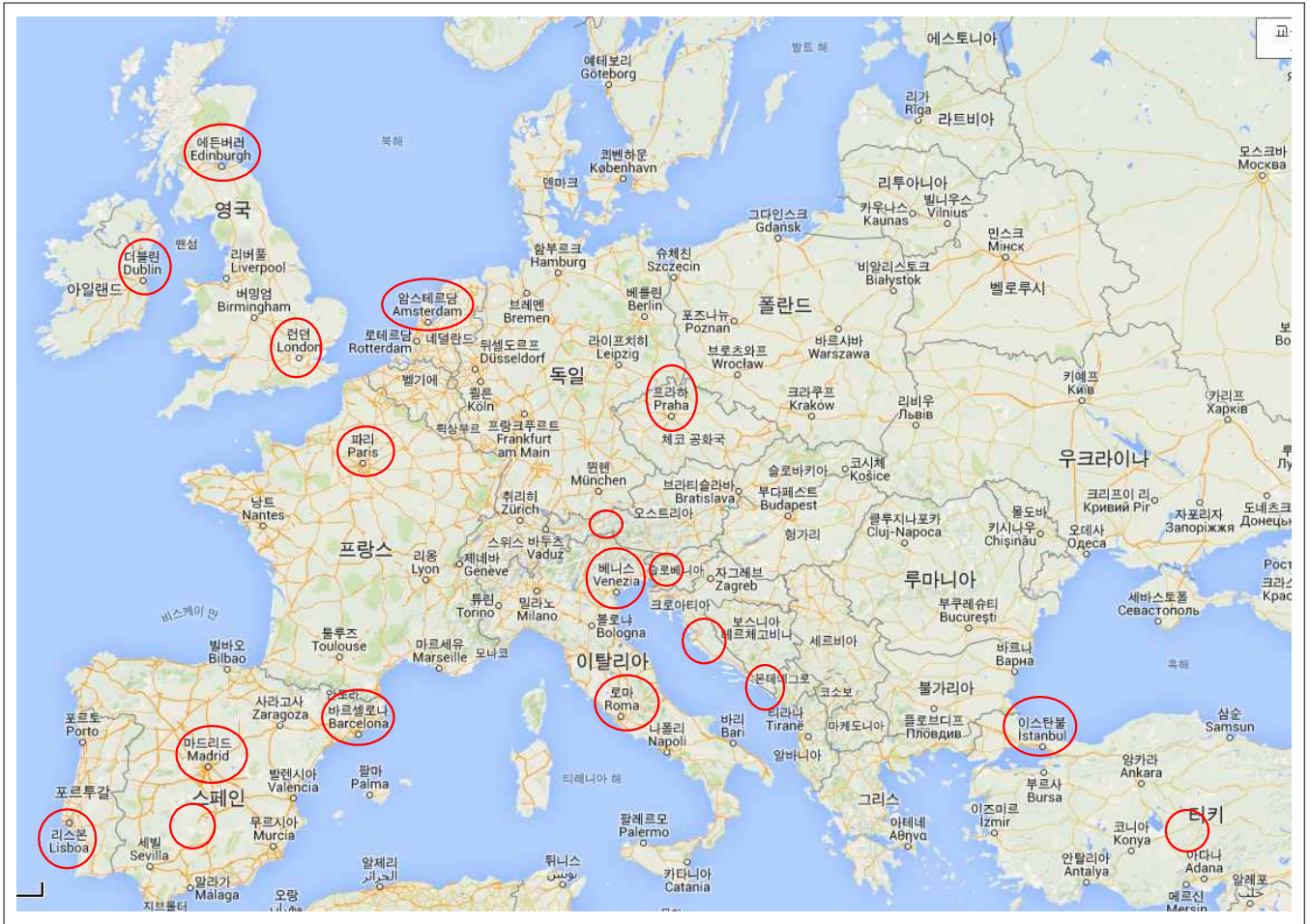
- 항공권 : 166만원 × 3명 = 498만원 (총 6 구간 이용)
(인천 → 이스탄불 → 마드리드 , 파리 → 더블린 → 에든버러 → 런던 → 인천)
- 숙박비 : 10만원 × 149일 = 1,490만원
- 식 비 : 5만원 × 149일 = 745만원
- 교통비 및 잡비 : 5만원 × 149일 = 745만원

총 3,475만원의 비용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행국가와 도시를 정하고 동선 그리기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를 보고 싶은지 미리 정해 두어야 겠지요. 지도를 펼치고 (인터넷 화면에 띄우고) 여행하고 싶은 도시에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어느 곳이 괜찮은지 잘 알지 못한다면, 우선 여러 도시에 대한 여행기나 정보를 틈틈이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글맵에서 여행하고 싶은 도시에 표시하기]

꼭 가보고 싶은 몇몇의 도시를 찍어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그라나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로마, 터키의 이스탄불과 카파도키아, 체코의 프라하,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와 플리트비체, 슬로베니아의 고사우 등등..

여행하고 싶은 도시를 어떤 순서로 갈 것인지를 정하기 전에, 유럽에 인(in)을 하는 도시와 아웃(out)하는 도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도시 간 이동수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수많은 도시를 모두 비행기로 이동하는 건 금전적, 시간적 낭비일테니, 도시간 이동을 기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차량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일곱 살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긴 여행으로 계절이 세 번 바뀌는 지라 챙겨가는 옷과 물품이 많아, 기차로 여행을 하는 건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편한 이동 수단은 자동차 였지요. 많은 짐을 자동차 트렁크에 싣을 수 있고, 졸린 아이를 뒷자리에 누워 재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편한 이동수단은 없었습니다.

도시간 이동을 자동차로 움직이기로 결정했으니, 인(in) 아웃(out) 도시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이동할 수 없는 구간은 유럽의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동차의 렌트 비용과 리스(lease) 비용을 따져보고, 유럽 저가항공의 가격을 알아보고, 여행하고 싶은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 괜찮은 여행지(도시)가 있는지 조사하며, 어느 도시에서 얼마나 머무를 것인지 정했습니다. 그렇게 동선과 이동수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나중에 몇 번이고 바뀌며 구체화 되었습니다.



[구글맵에서 여행경로를 그려보기]

- 1) 터키의 이스탄불로 인(in)을 해서, 자동차를 빌려 터키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 옵니다.
- 2) 이스탄불에서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비행기로 이동합니다.
- 3) 마드리드에서 차를 빌려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해안선을 타고 반시계방향으로 돌아 바르셀로나로 이동 합니다.
- 4) 다시 바르셀로나에서 프랑스 남부도시를 이동하며 반시계 방

향으로 서유럽과 동유럽을 한바퀴 돌아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파리에서는 한 달 간 살아보기로 합니다.

- 5) 파리에서 아일랜드의 더블린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합니다.
- 6) 더블린에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로 비행기로 이동하고,
- 7)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다시 비행기로 이동 합니다.
- 8) 런던에서는 보름 가량 머문 뒤 한국으로 아웃(out) 합니다.

아쉽게도 포르투갈이 빠진 이유는, 포르투갈에서 차를 빌려 스페인이나 서유럽에서 반납을 할 수 있는 렌터카 회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스페인까지 기차 또는 버스로 6시간 가량 이동을 해야 하는데, 산더미 같은 짐과 아이 걱정 때문에 여행지에서 빼야 했습니다.

항공권 알아보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공권을 구입하는 일에 이보다 더 잘 맞아 떨어지는 속담이 없지요. 대부분의 항공사가 얼리버드(Early Bird)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구입하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역시 이용하게 될 모든 구간의 항공권을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전에 미리 구입해 놓았습니다.

또한 항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다구간 (Multi City) 항공권’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탱오버 항공권이라고 불리었던 항공권입니다. 직항 보다는 1~2차례 경유하는 항공권이 저렴하기 마련인데요, 경유하는 공항에서 잠시 시간을 때우다가 바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경유 도시에서 며칠 혹은 몇 달간 여행을 하고, 원하는 날짜에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는 거지요. 원래 경유하는 항공권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항공요금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터키항공의 다구간 항공권을 구입했는데,

- 1) 인천에서 이스탄불을 경유, 마드리드로 가는 항공권을 구입
- 2) 단 이스탄불에서 마드리드행을 갈아타는 건 약 한 달 뒤의 비행기로 결정
- 3) 이스탄불에서 내려 한 달 간 터키여행을 즐긴 뒤 추가 항공요금 없이 마드리드까지 이동
- 4) 아웃(out)은 런던에서 이스탄불 경유, 바로 인천행으로 환승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탄불 → 마드리드’ 한 구간의 항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내에서 항공기로 이동할 때에는 유럽의 여러 저가 항공사 중 인지도가 높고, 평가가 괜찮으며, 요금이 저렴한 항공사를 알아 보았습니다. 유럽의 저가 항공사는 이름만 저가항공인 우리나라와 달리 항공요금이 ‘정말’ 저렴 합니다. 불과 몇 만원에 나라와 나라를 이동할 수도 있지요.

구 간	항공사	항공요금	비 고
인천 → 이스탄불	터키항공	4,160,000원	3인 비용
이스탄불 → 마드리드			
런던 → (이스탄불) → 인천			
파리 → 더블린	에어링구스	410,000원	
더블린 → 에든버러	에어링구스	220,000원	
에든버러 → 런던	버진아틀란틱	187,000원	
총 계		4,977,000원	

[사전에 구입한 항공권의 항공사와 가격]

항공권을 구입한 항공사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사	항공권을 구입한 웹사이트
터키항공	인터파크항공 (http://tour.interpark.com/)
에어링구스	항공사 홈페이지 (http://www.aerlingus.com/)
버진아틀란틱	항공사 홈페이지 (http://www.virgin-atlantic.com/gb/en.html)

항공요금은 유가(油價)와 환율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이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요.

대강의 일정 잡기

동선을 잡았다면 이제 어느 도시에서 며칠간 머물 것인가를 대략 정해두어야 합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대강이라도 정해두지 않으면 무계획적인 여행이 되어버려 한없이 늘어지거나, 이후 쫓기는 듯 촉박한 여행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우선 나라 별로 머물 일정을 잡아 봅니다. 추후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으니 대략의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국가 (도시)	체류일	비고
터키	25일	4월
스페인	20일	5월
이탈리아	10일	5~6월
크로아티아	10일	6월
슬로베니아	3일	
오스트리아	5일	
체코	10일	
폴란드	2일	
독일	5일	
네덜란드	3일	
벨기에	2일	
프랑스 파리	30일	7월
아일랜드	7일	8월
스코틀랜드	5일	
영국 런던	10일	
계	147일	

- 이제 위 밑그림을 바탕으로 도시별 세부적인 일정을 잡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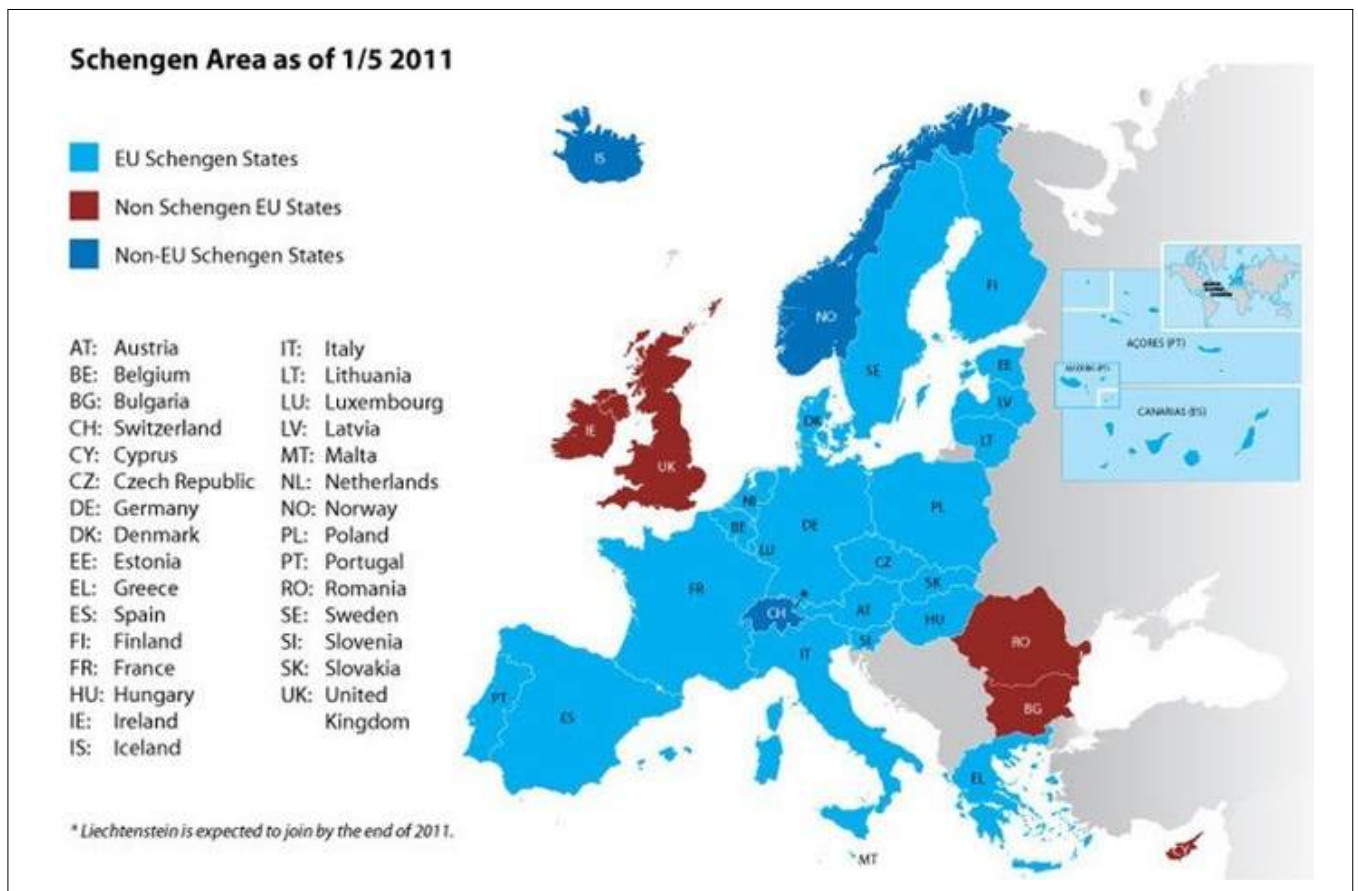
일정	숙박일	여행지	일정	숙박일	여행지
3.31 ~ 4.1	1	인천 → 터키 이스탄불	5.28 ~ 5.30	2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4.1 ~ 4.6	5	이스탄불	5.30 ~ 6.1	2	스플리트
4.6 ~ 4.9	3	이즈미르 (에페소)	6.1 ~ 6.4	3	두블로브니크
4.9 ~ 4.10	1	파묵칼레	6.4 ~ 6.5	1	스플리트
4.10 ~ 4.15	5	안탈리아	6.5 ~ 6.6	1	자그레브
4.15 ~ 4.20	5	카파도키아 (괴레메)	6.6 ~ 6.8	2	슬로베니아 블레드 호수
4.20 ~ 4.21	1	앙카라	6.8 ~ 6.15	7	오스트리아 팔츠캄머굿
4.21 ~ 4.24	3	사프란볼루	6.15 ~ 6.17	2	체코 체스키크룸로프
4.24 ~ 4.26	2	이스탄불	6.17 ~ 6.20	3	프라하
4.26 ~ 4.28	2	스페인 마드리드	6.20 ~ 6.22	2	폴란드 포즈난
4.28 ~ 4.30	2	톨레도	6.22 ~ 6.23	1	브레멘
4.30 ~ 5.2	2	그라나다	6.23 ~ 6.27	4	네덜란드
5.2 ~ 5.5	3	말라가	6.27 ~ 6.29	2	벨기에
5.5 ~ 5.7	2	발렌시아	6.29 ~ 7.1	2	룩셈부르크
5.7 ~ 5.14	7	바르셀로나	7.1 ~ 7.31	30	프랑스 파리
5.14 ~ 5.16	2	프랑스 아를			
5.16 ~ 5.17	1	모나코, 니스	7.31 ~ 8.7	7	아일랜드 더블린
5.17 ~ 5.19	2	이탈리아 피사, 피렌체	8.7 ~ 8.12	5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5.19 ~ 5.22	3	베로나	8.12 ~ 8.23	11	영국 런던
5.22 ~ 5.24	2	베네치아	8.23 ~ 8.24	1	런던 → 이스탄불 → 서울
5.24 ~ 5.28	4	크로아티아 로빈, 플라, 리예카	계	146	

위와 같은 일정을 잡고 출발했지만, 실제로 여행할 때에는 일정도 동선도 상당 부분 변동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발 할 때에는 이탈리아의 북부를 지나 크로아티아를 위아래로 길게 왕복하는 일정이었지만, 실제 여행을 할 때에는 이탈리아의 남부로 내려가 페리에 배를 싣고 크로아티아로 가 남부에서 북부로 한번에 이동했다던가 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개략적인 일정을 세워두면, 지체된 일정을 다른 여행지에서 즐기거나 하는 식의 계획적인 변경이 가능한데,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하는 무계획적인 일정이라면 여행 말

미에 시간에 쫓겨 꼭 보고 싶었던 곳을 보지 못하거나,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를 스쳐 지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이라는 곳이 무한정(無限定) 체류를 허락하지 않고, 최대 90일 까지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나 유학 등의 비자(VISA)가 없이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유럽 땅을 밟았다면, 91일 이후 부터는 불법체류가 되어 버리니 계획적인 일정이 꼭 필요하겠지요.

유럽 여행은 최대 90일까지, 쉥겐(Schengen) 조약



[셥겐 가입국 및 미가입국 현황 - 2011년 기준]

90일 이내의 짧은(?) 유럽 여행이라면 ‘셴겐조약’으로 인해 무척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을 출입국(국경)심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것이 바로 ‘셴겐 조약’ 이거든요. 위 사진에서 하늘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 조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유럽에 들어갈 때와 마지막으로 유럽을 빠져나올 때에만 출입국 심사를 받고, 그 외의 국가간 이동 시에는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 해서, 1)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으로 입국을 하고, 2) 이후에는 기차나 차량, 혹은 자전거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를 여행하고, 3)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에서 출국을 하는 경우,

스페인 입국 시 입국심사, 네덜란드 출국 시 출국심사를 받을 뿐 그 중간의 여러 나라에서는 아무런 제약이나 심사 없이, 마치 하나의 나라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척 편리한 조약이지요?

다만 이 편리한 조약이 장기여행 시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여행을 목적으로 한 셴겐 가입국의 최대 체류일은 90일 이내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출국일 기준 180일 이내에 최대 90일 까지 체류)

예를 들어 3월 1일 쉥겐가입국(유럽)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후인 5월 28일 전에 쉥겐가입국(유럽)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 쉥겐조약에 대해 공부 하기 전에는 유럽 대륙을 6개월 가량 여행할 계획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여정을 대폭 축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대륙 3개월 일정의 앞뒤로 쉥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터키를 약 1개월, 마찬가지로 영국과 아일랜드를 약 1개월 집어넣어 총 5개월 간의 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와이프가 여행하고 싶어했던 크로아티아가 쉥겐 미가입국이었기에, 유럽대륙의 체류일정을 열흘 간 연장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쉥겐 가입국가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니, 시간이 갈 수록 유럽 장기 여행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소에 대한 고민

지금까지 열흘 이내의 짧은 여행을 할 때에는 항공권은 물론

숙소까지 사전에 완벽히 예약을 해 놓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5개월 가량의 긴 여행에서는 모든 일정을 완벽히 짜놓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어느 여행지가 너무 좋다면 계획보다 며칠 더 머물 수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여행지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가족 중 누군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일정을 늦추어야 할테니까요. 그래서 숙소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리고 절대 변경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그 외의 대부분의 경우, 여행을 하며 하루나 이틀 전에 인터넷으로 숙소를 검색하여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예약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했고, 도움을 많이 받은 건 호텔스닷컴(<http://kr.hotels.com/>)과 부킹닷컴(<http://www.booking.com/>)이었습니다. 숙소의 인터넷(wifi)를 이용해 노트북으로 검색을 하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편하게 예약할 수 있었지요.

호텔스닷컴의 검색이 보다 편리하고, 10박을 예약하면 1박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점이 있어 주로 사용을 했지만, 부킹닷컴에서는 검색이 되는 아파트 또는 B&B 형태의 숙소가 호텔스닷컴에는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양 사이트를 모두 검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알프스 기슭의 고사우(Gosau)에 숙소를 잡을 때에는 호텔이 하나 밖에 없고, 대부

분 B&B의 형태의 숙소가 많아 부킹닷컴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1박 내지 2박을 예약해 놓고 떠나되, 현지에 도착했을 때 숙소가 마음에 들고, 볼거리가 풍성하다면 다시 1~2박을 추가 하는 식으로 숙소를 정했습니다.

여행 전 국내에서 미리 예약한 숙소는 1) 한 달 간 머물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 2) 미리 예약해야 그나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살인적인 물가의 런던 3) 세계적인 축제기간으로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숙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에든버러 4)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도착하는 첫 번째 여행지 이스탄불, 이 정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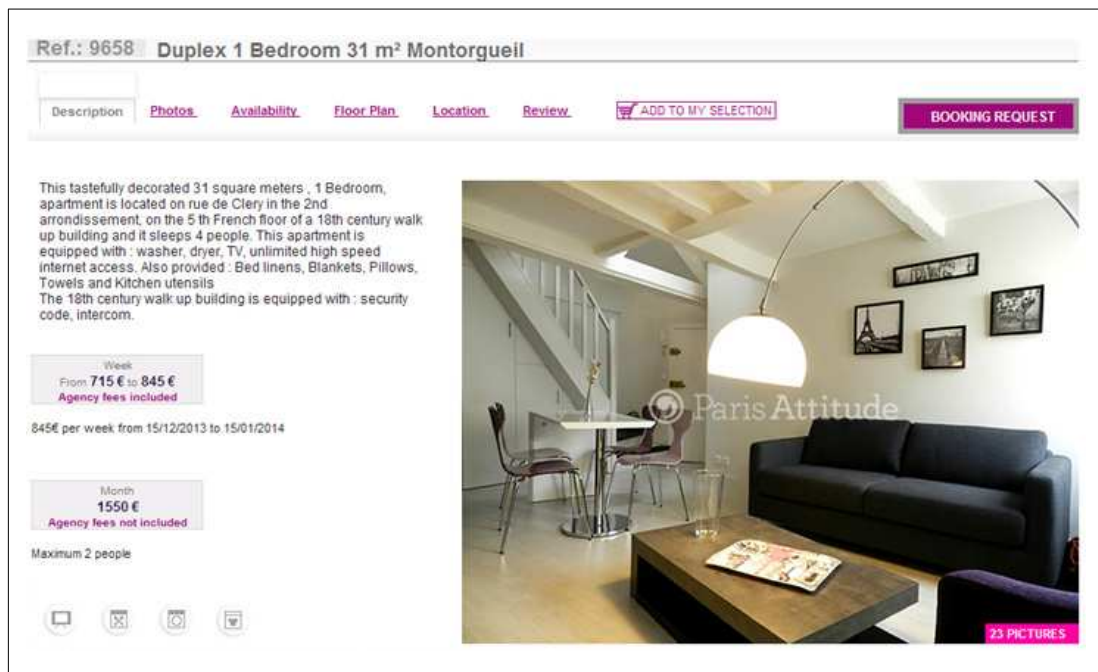
이 중 프랑스 중개사이트를 통해 파리의 아파트를 30일간 예약했던 계약과정이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 파리(Paris) 아파트 임대

파리에서 한 달 간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아내의 의견은 여행 준비단계 때부터 확고 했습니다. 파리 일정을 줄이고 대신 북유럽까지 돌아보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지만,

한 도시에서 한 달을 살아 보는 것도 나름 멋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내 아내의 의견에 동의 했습니다.

숙소를 고를 때에도 아내의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청소 등 모든 관리를 다 해주는 호텔에 묵기를 원했고, 집사람은 단기 임대 아파트를 빌려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내놓았지요.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당신이 직접 골라 보라구, 그곳이 괜찮으면 동의하겠다고요.



[임대 아파트 중개사이트의 화면 - 저희가 한 달 간 체류했던 집]

세계 제일의 관광 도시답게, 파리에선 여행자를 위한 단기임대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라와있었습니다. 임대 아파트 소개 사이트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제가 이용했던 파리에티튜드닷컴

(<http://www.parisattitude.com/>)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여러 조건 검색을 통해 원하는 아파트를 찾습니다. 시내 중심에 있을수록 가격이 높고, 매물이 일찍 사라집니다. 반면 외곽에 있을수록 가격이 낮습니다. 대신 치안이 안좋은 문제가 종종 거론되곤 합니다. 저희는 7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 놓은 덕분에, 시내 중심(2구역)의 복층식 아파트를 무척 저렴한 가격에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 2)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클릭하여 예약요청(booking request) 합니다. 이때 해당 아파트를 임대할 수 없는 조건을 가정하여 찾고자 하는 형태의 아파트 조건을 입력합니다.
- 3) 원하는 아파트가 계약가능할 경우, 예약금을 보내달라는 편지가 옵니다. 중개수수료(임대금액의 1/3)와 임대료의 절반을 보내야 하고, 또한 법적 의무사항인 가옥보험(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가입필증을 보내야 합니다.
- 4) 계약서를 이메일(팩스)로 주고 받고, 송금을 마치면 예약이 완료 됩니다.

모든 과정은 이메일로 이루어지며, 안타깝게도 영어로 진행됩니다. 계약과정에서 주고받은 편지들은 제 인터넷 블로그(<http://noraneko77.blog.me/10180828708>)에 올려 놓았습니다.



렌트카(rental car)와 리스카(lease car)

이번 여행의 주요 이동수단은 자동차였기 때문에 임대차량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1) 터키를 20일 간 일주할 렌트카 2) 스페인을 10일간 일주할 렌트카 3) 유럽대륙을 50일간 일주할 리스카를 구하게 되었구요.

렌트카(rental car)는 알아도 리스카(lease car)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차근차근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 렌트카 (rental car)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흔히, 그리고 쉽게 사용하는 임대차량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할 때에도 빌리고, 짧은 해외여행 중에도 쉽게 이용을 하지요. 해외에서 사용하는 렌트카의 예약절차도 무척 간단한데요, 그 이유는 한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렌트카 회사인 허츠(hertz) 역시 한국지사가 있고, 한국어 사이트(<https://www.hertz.co.kr/>)가 있습니다. 24시간 한국어 전화상담도 가능한 강점이 있구요. 단점이라면 역시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해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겠지요.

그 외에도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에이비스(AVIS) 렌트카도 이용할만 합니다. AVIS 역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현지화된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는데 (한국 사이트 <http://avis.co.kr/>)

- 1)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AJ렌트카라는 이름을 내걸었구요
- 2) 각 나라별 사이트 마다 제공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미국 사이트(<http://avis.com/>) , 영국 사이트(<http://avis.co.uk/>) , 우리나라 사이트의 가격이 각각 달라요.

렌트카 역시 4~5개월 정도 전에 미리 예약을 해놓았는데, 마침 AVIS의 영국 사이트에서 신년맞이 할인행사가 있어 무척 저렴한 가격에 렌트카를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전세계 대부분 지역의 차량을 예약할 수 있으니, 가격이 가장 저렴한 사이트를 선택하여 예약을 하면 됩니다.

가격이 저렴한 걸로 따지면 소규모 현지 렌트카 회사나 잘 알려진 렌탈카스닷컴(<http://rentalcars.com/>) 등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건 해당 회사의 이용후기를 인터넷으로 잘 검색해 보고 검증된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 예약사이트의 경우, 이용후기를 보면 대부분 선택에 후회한다는

내용이 많았구요. 이를테면 작은 접촉사고에도 몇십 ~ 몇백만원의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되었고, 이에 대해 예약사이트에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거나 하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곳은 피해야 겠지요. 적어도 허츠나 AVIS 같은 대규모 회사에서는 그런 피해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리스차량 (lease car)

그다지 잘 알려진 방식의 임대차량입니다. 시트로엥, 푸조 (Peugeot) 등 프랑스의 몇몇 자동차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리스차량 제도는 1) 프랑스인이 아닌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고 2) 1년 이내의 기간만 이용 가능하며 3) 출고된 새 차를 리스 차주 명의로 등록하여 제공하고 4) 리스가 끝나고 반납된 차량은 프랑스 자국민에게 저렴한 값에 중고차로 다시 판매합니다.

리스 차량의 장점은 우선 1) 공장에서 출고된 새차를 제공받는다는 점이구요 2) 30일 이상 장기 임대의 경우 렌트카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하다는 겁니다.

또한 렌트카의 경우 대부분 (허츠 또는 AVIS 마저도) 서유럽권과 동유럽권의 보험이 교차적용 안되는 문제가 있는데, 리스 차량의 경우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자동차로 유럽 전역을 여행하는 여정이라면 리스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 교차 적용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 허츠(hertz) 상담원과 여러차례 통화를 했었는데, 서유럽에서 렌트한 차량이 동유럽권으로 나갈 경우 그곳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스페인이나 파리에서 렌트한 차량으로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 동유럽을 여행을 하던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전액 자비로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독일에서 렌트한 차량은 서유럽과 동유럽 모두 보험을 적용해준다고 하는데, 저희 여행의 동선과 맞지 않아 포기해야 했습니다.



[푸조 리스 차량 - 50일간 이용]

푸조(Peugeot) 차량으로 리스하기로 결정 후, 푸조 홈페이지와 국내 대행사이트 중 어느 곳에서 예약을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국내 대행사이트(<http://www.eurocar.giveu.net/>)를 마음 편히 이용했습니다. 사실 보험 문제를 뒤늦게 확인하여, 허츠 렌트카를 취소 후 부랴부랴 리스차를 알아보던 터라 충분한 공부를 하지 못해, 이것저것 맘 편히 물어볼 수 있는 국내 대행사를 이용했지요.

렌트(리스) 회사	기 간	총비용	일일비용	여행지역
AVIS 렌트카	19일	601,178원	31,640원	터키
AVIS 렌트카	10일	401,848원	40,180원	스페인
푸조 리스카	50일	2,256,000원	45,120원	유럽전역

[렌트 및 리스카 이용에 따른 요금]

항공권도 숙박요금도 차량 렌트비용도 모두 미리 할수록 저렴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고 아일랜드 현지에서 당일 이용한 AVIS 렌트카 이용요금은 1일 12만원 정도 했어요. 3~4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여행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을 최소 6개월 정도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전과 국제현금(체크)카드

짧은 여행이라면 유로(euro)나 달러(dollar) 등 현지통화를 충분히 국내에서 환전해가면 되지만, 장기여행의 경우 현지에서 필요한 수백만원 내지 1~2천만원의 현금을 미리 환전해갈 수는 없겠지요. 도난이나 분실 위험에 어디 발뺌고 잠이나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여행자 수표라는 걸 흔히 이용했는데, 요즘은 국제 현금카드가 워낙 일반화 되어서 이걸 사용하는 여행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국제현금카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1) 우리나라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여행에 필요한 돈을 입금하고 2) 국제현금카드를 신청해 지급 받습니다. 3) 해외 여행지의 ATM에서 그나라 통화로 현금을 인출하면 4) 같은 시간 우리나라에서 개설한 통장에서 출금시점의 환율에 맞춰 원화가 인출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현금카드로 프랑스의 ATM에서 100유로를 인출할 경우, 같은 시각 제 통장에서는 142,000원이 인출되는 겁니다. 국제현금카드가 있으면 무척 편리하겠지요?

국제현금카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출금수수료가 조금씩 다른데, 예전에는 저렴

한 출금수수료로 인기가 많았던 씨티은행의 국제체크카드가 인출수수료가 오르면서 인기가 시들해졌고, 하나은행의 하나비바카드가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은행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만들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만들면 될텐데요, 중요한 점은 1) VISA 계열의 카드와 MASTER 계열의 카드를 각각 만들 것 2) 주로 사용하게 될 국제현금카드는 2~3개 만들어서 나누어 보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사용하게 되는 ATM이 VISA(Visa Plus)만 지원할 수도 혹은 Master만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의도치 않은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하여 카드를 여러 곳에 분산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씨티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여행에 필요한 돈을 입금해 놓은 뒤, 국제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를 총 3장 지급 받았습니다. 하나는 지갑에, 하나는 배낭에, 또 하나는 와이프의 가방에 넣어 두었지요. 그 외에 우리은행에서도 국제현금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일에 대비하여 복수의 카드를 만들어가는 편이 현명하겠지요. 국제현금카드 외 현금은 300만원 정도 환전하여 출국했습니다.

국제면허증과 여권사본

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당연히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절차는 무척 간단한데, 기존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분이라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1) 신청서 작성 2) 사진 한 장 제출 3) 발급수수료 7천원을 내면, 10분 안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렌트(리스)차량을 인수할 때 당연히 보여주어야 하는 게 이 국제운전면허증인데, 만약 이 면허증을 여행 중 분실하였다면? 외국 현지에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권의 경우 분실을 하더라도 가까운 영사관에 방문하여 며칠 이내에 단수여권을 교부 받을 수 있는 반면, 국제운전면허증은 영사관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차 여행 중 국제면허증을 분실할 경우를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여행 중에는 돈보다도 중요하게 챙겼던게 그래서 국제면허증이었습니다.

여권사본, 면허증 사본, 여권사진 2~3장, 그리고 비상금과 비상 카드 한 장은 늘 바지 속주머니 깊은 곳에 보관하고 다녔습니다.

상비약품과 여행자보험

여행을 준비하며 저보다 앞서 여행한 선배 여행자분들의 수많은 후기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 중 저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 글이 하나 있었는데, 7~8살 아이와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 병원 응급실을 힘들게 찾아가 3일 입원을 했는데, 별다른 시술 없이 주사 몇 번 맞았을 뿐인데도 수백만원의 의료비가 청구 되었다는 글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잔병치레가 심했던 터라 은근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두번은 감기 따위로 병원에 다녀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전액(자부담 10% 제외) 지원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했고, 병원 의사선생님께 부탁드려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보름치 준비해두었습니다.

● 보험가입

상품명	보험사	기간	가입인원	총비용
해외여행자보험	동부화재	147일간	3명	236,430원

● 상비약품 (아이용)

해열제	항생제	조제 감기약	지사제	피부연고
3곽(30포)	3병 (30회분)	15일치	2병	1

항생제 및 조제 감기약을 가져가기 위해 처방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영문 처방전을 제공하는 동네병원이 없어 제가 번역한 영문본을 한글본과 함께 가져갔구요. 다행히 여러 나라를 오고가는 동안 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처방전을 요구한 곳은 없었습니다.

[Membership] H Yo		[Location] 00000000		[No.] 5120	[Telephone] 010-7		[For Patient]			
Prescription										
<input checked="" type="checkbox"/> Medical Insurance <input type="checkbox"/> Medical Assistance <input type="checkbox"/> Occupational Safe Insurance <input type="checkbox"/> Driver Insurance <input type="checkbox"/> Etc.() Hospital No. 1234										
Issued Date and No.			2014-03-18-0014		Name		Br e Hospital			
Patient	Name		H Hy (c3)		Hospital	Telephone		02-2		
	Resident Registration No.		08			Fax		02-2		
						E-mail				
Disease Symbol	J0390		Dr. Name		J N (Signature)		License sort	Pediatrician		
							License No.	7		
* If the patient do not want to write, disease symbol is not noted										
Medicine Supplies				Dosage (1 time)	Frequency (1 day)	Total Day	Usage			
670301360_Comy Syrup(Internal)				8	3	7				
645700870_SETOPEN Tab 325mg(Internal)				1	3	7				
643500920_(Noo Payment)Medilac-S Powder(Internal)				1	3	7				
Hypodermic subcutaneous injection (<input type="checkbox"/> Hospital <input type="checkbox"/> Out of Hospital)							Pharmacy Caution			
Pharmacy Period Within (7) days, submit this prescription to pharmacist										
Filling Prescriptions										
Details	Pharmacy							Change or Alteration		
	Pharmacist		Name	(Signature)						
	Amount of prescription									
	Date									

[영문으로 번역한 처방전의 예]

✏️ 자동차 여행의 필수품 - 네비게이션

유럽 자동차 여행을 준비하며 당황했던 부분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렌트카 회사에서 네비게이션을 무료가 아닌 유료 옵션으로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네비게이션의 이용비용은 하루 1만원 정도였고, 열흘 이상 빌릴 경우 제품을 아예 구입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저 같은 경우 총 80일 정도 차량을 렌트(리스)해야 하니 네비게이션 비용만 80만원 이상 소요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을 미리 구입해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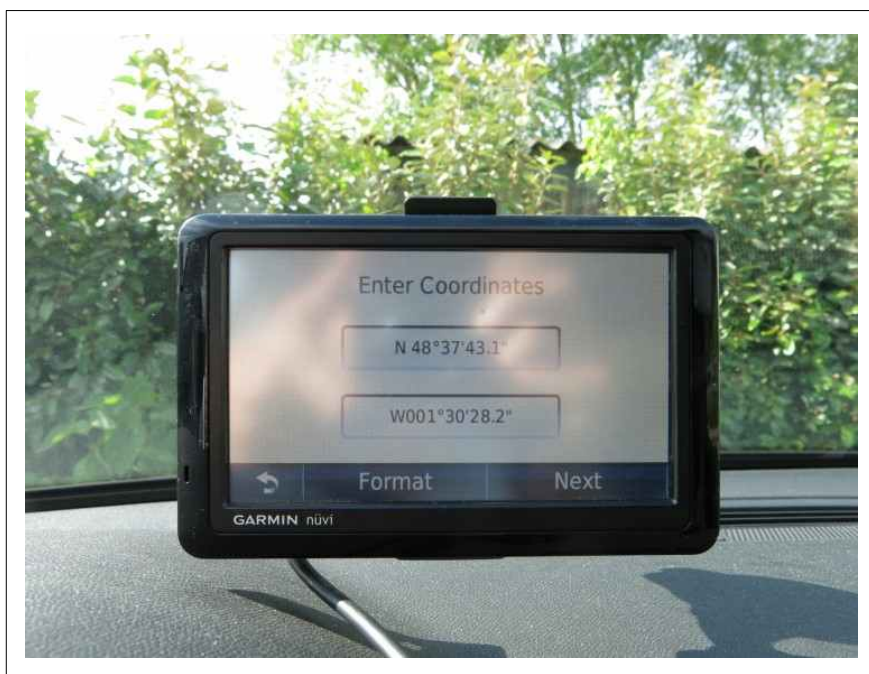
[유럽에서 사용한 네비게이션 - Garmin 1490T]

우리나라의 유럽 자동차 여행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은 가민(Garmin) 또는 톰톰(TomTom)네비게이션 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판매하는 곳이 없어, 여행을 다녀온 분이 사용했던 중고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구요.

저는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미국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이베이(ebay.com)에서 며칠간 상품을 검색한 끝에, 가민 네비게이션과 유럽지도(sd카드)를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네비게이션을 다시 중고로 팔 수 있었으니 사실상 무료로 사용했던 셈이지요.

- 네비게이션의 주소(좌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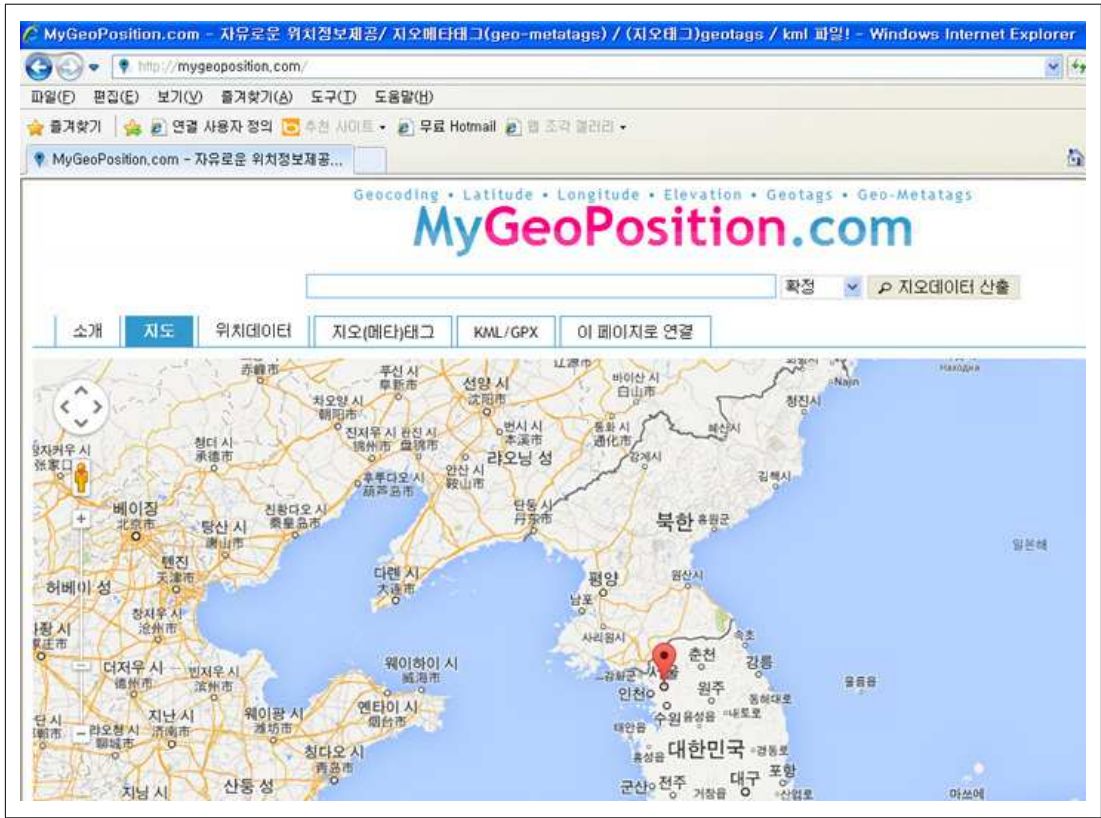


[GPS 좌표 입력을 통한 지점 찾기]

유럽에서 사용하는 네비게이션은 우리나라의 그것처럼 주소 검색

색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일단 상호 또는 전화번호 검색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소체계가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 한 번에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었지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목적지를 입력하는 방법이 GPS(위경도) 좌표 입력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좌표를 확인해야 하는데, 제가 가장 편하게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는 ‘마이 지오 포지션(<http://mygeoposition.com/>)’입니다.



[mygeoposition.com 접속화면]

- 1) mygeoposition.com에서 원하는 지점에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지역의 좌표를 볼 수 있습니다.



- 2) 이제 확인한 위경도 좌표를 네비게이션의 목적지(destination / address, coordinates) 찾기에 입력해주면 되겠지요.



[다른 종류의 네비게이션에 GPS 좌표 입력 예]



여행준비 품목 리스트

구분	분류	품목	필수정도	비고
신분증	신분증	여권	★★★★	각 1개
		운전면허	★★	
		국제운전면허	★★★★	
		신분증사본 및 사진	★★★★	
서류	항공권	항공권(e-티켓)	★★★★	구간별
	렌트카	렌트카 바우처	★★★★	
		리스카 바우처	★★★★	
	호텔	호텔 바우처	★	
		아파트 계약서류	★★★★	
전자장비	카메라	카메라	★★★★	
		메모리카드(여분)	★	
		배터리(여분)	★★	
		배터리 충전기	★★★★	
		메모리카드 리더	★★	
	노트북	노트북	★★	
		충전기	★★	
		TV 연결 케이블	★	
		외장하드(사진백업용)	★	
		태블릿 PC	★	
		무선공유기 (미니)	★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	
		거치대	★★	
		시거잭	★★	

구분	분류	품목	필수정도	비고
전자장비	휴대폰	스마트폰	★★★★	
		충전기	★★★★	
	멀티코드	멀티코드	★★	1개
	아답터	여행용 멀티아답터	★★★★	2개
여행경비	신용카드	해외용 신용카드	★★★★	종류별 1~2개
		국제현금카드	★★★★	종류별 1~2개
	e뱅킹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	
		인터넷뱅킹 어플	★★★★	
		보안코드 카드	★★★★	
의료관련	상비약	진통제(두통약)	★★★★	
		종합감기약	★★★★	
		소화제	★★★★	
		어린이 해열제	★★★★	
		어린이 감기약	★★★★	
		어린이 지사제	★★★★	
여행보험	여행보험	여행자보험	★★★★	
식료품	식료품	소형 전기밥솥	★★	
		소형 전기쿠커	★★	
		김 (삼각김밥용)	★	
		볶음고추장	★	
기타	안전	소형자물쇠	★★★★	3~4개
		은행(카드) 분실연락처	★★★★	
	가방	여행용 가방	★★★★	
	기타	빨래줄 (5미터 이상)	★★★★	2개
		주머니칼 (다용도)	★★★★	1개

아이와 함께 한 여행을 고려했을 때 가장 유용했던 건 1인용 (소형)전기밥솥과 전기쿠커 였습니다. 아이는 어른처럼 현지음식에 적응을 쉽게 하지 못하고, 적응할 무렵 여행지가 바뀌기 때문에 하루 내지 이틀에 한 번은 쌀밥을 지어 해먹여야 했습니다. 다행히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슈퍼마켓에서 쌀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아이가 좋아하는 햄 또는 참치 같은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스 또는 석유 버너는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호텔 내 취사가 문제될 수 있지만, 전기 콘센트는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전기로 사용하는 밥솥과, 만능쿠커는 실로 유용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인용 전기밥솥으로 준비한 아이 식사 준비]

또 하나 여행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바로 빨래줄과 빨래집게였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는 호텔 세탁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현지에 가 보니 이용요금이 상상 외로 비쌌습니다. 가격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 양말 한 켤레 2천원, 티셔츠 5천원 정도 였어요. 여행 내내 사흘에 한 번은 빨래를 해야 했는데, 자칫 세탁비만 수십 만원 이상 깨질 상황이더군요.

결국 세탁용 세재를 사서 호텔 욕조에서 손빨래를 하고, 호텔 방에 빨래줄을 걸어, 잘 말려 입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행을 할 나라와 도시의 역사를 공부하고, 앞서 다녀온 여행자의 여행기를 읽다보면 미처 생각 못했던 요긴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사실 여행을 준비하던 그 시기가 가장 설레고 좋았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막상 여행을 떠나보면 힘든 일도 많이 생기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준비를 하는 동안, 드디어 한국을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낯설고도 친근한 터키



o 여행기간 : 3.31 ~ 4.26 (26일)

o 여행도시 : 이스탄불, 부르사, 이즈미르,
파묵칼레, 안탈리아, 콘야,
카파도키아, 앙카라, 사프란볼루

회사에는 미리 양해를 구해 놓고 여행을 떠나기 사흘 전부터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5개월 간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 될 터라 냉장고를 비우는 일부터, 화장실을 포함한 집안 곳곳을 대청소 했습니다. 가구에 흰 천이라도 씌우고 가야 하는 건가, 나름 진지한 고민도 했구요.

사실 회사를 쉬기 일 년 전부터 주위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두었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쉬게 되면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암묵적인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더 들떠하던 동료도 있었고, 함께 고민을 해주던 동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의 걱정이 제일 컸구요. 복직이 어려워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느냐 부터 돈도 없는 녀석이 빚을 내서 여행을 가는 게 제정신으로 할 짓이냐 까지, 있는 잔

소리 없는 잔소리 다 들어야 했습니다. 어쨌거나 큰 결심을 하고 일을 벌이는 터라, 저의 각오도 나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짐을 꾸리고, 혹 빠진 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드디어 인천공항으로 가는길..

집을 나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티켓팅을 하며 짐을 실어보내고 나니 이제 좀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 많은 짐을 이고지고 다녀야 겠지요. 아니 짐보다 더 걱정되었던 건 아이였습니다. 짐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아이에게서 눈을 떼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아내와 굳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3월 31일 밤 늦은 비행기에 올라 다음날 새벽 터키의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밤 비행기라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아이를 재워갈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좌석을 예약할 때 아이를 높힐 요량으로 4인석의 중간을 비워두고 예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 (빈좌석) - 아이 - 아내] 이



렇게 좌석을 지정했어요. 설마 많고 많은 자리 중에 저 자리까지 꼭 채워서 가겠느냐 하는 마음으로요. 티켓팅을 해주던 항공사 직원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제대로 예약한게 맞냐고 물어봤었구요. 어쨌거나 제 짐작대로 중간자리는 빈좌석이 되었고, 아이는

엄마 무릎을 베고, 편히 누워갈 수 있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새벽 4시 반, 드디어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타 튀르크는 터키의 초대 대통령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무능력하고 부패한 이슬람 왕정을 몰아내고, 유럽 열강의 먹잇감이 되어가던 터키를 재건하였던 구국의 영웅 무스타파 케말, 훗날 의회에서는 그에게 ‘터키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타 튀르크 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하물을 찾기위해 기다리던 중, 다른 짐은 모두 나왔는데, 저희 짐 중 하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필품이 모두 들어있던 짐이라, 그 짐이 없으면 여행을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이라 식은 땀이 계속 나더군요. 여행 첫 단추부터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급기야 컨베이어 벨트가 서버렸지만, 저희 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공항 직원을 붙잡고 물어보아도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

습니다. 다행히 공항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아내와 아이를 남겨놓고 공항을 샅샅이 뒤지며 뛰어 다녔습니다. 그때 공항 저 구석에 저희 짐이 놓인게 보이더군요. 얼른 달려가 냉큼 들고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작컨대, 파손 위험이 있는 수하물은 컨베이어벨트로 내보내지 않고, 안전하게 공항내부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짐에 파손 위험 딱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걸 미리 설명해주었다라면 좋았을 걸, 가슴이 철렁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스탄불에 도착하는 시간이 대중교통이 다니기 전 새벽 시간이었고, 짐이 많은 관계로 호텔에 픽업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다행히 5박 이상은 투숙객에게는 추가 비용 없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약 30분 거리, 호텔에 도착했을 때에도 시간은 아침 7시가 채 안된 시간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얼리 체크인을 하고 오전 중에 낮잠을 자며 체력을 보충한 뒤 오후에나 나올 계획이었는데, 글썄 얼리 체크인을 해줄 방이 없습니다. 일박 요금을 더 지불하겠다고 해도 가용한 방이 없다니 이거 참 낭패였습니다. 그나마 비행기에서 잠을 푹 잔 아이의 체력이 괜찮아 보여, 호텔에 짐을 맡겨두고 그 이른 아침 이스탄불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비치된 지도를 펼쳐들고 처음 향한 곳은 ‘블루 모스크’ 이스탄불의 가장 큰 회교 사원입니다.



이슬람교는 서기 610년 경 대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해 전파된 종교입니다. 야훼(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모시기는 하나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닌 예언자라 주장하였기에 훗날

십자군전쟁부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요. ‘알라’는 이슬람어로 발음하는 ‘야훼(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구약 성서는 내용이 같지요. 창세기부터 아담과 이브, 노아의 방주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마찬가지로 이슬람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신약 성서 대신, 무함마드가 계시받은 내용을 적은 코란을 기독교의 신약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방위 훈련 때 사이렌이 전국 방방곡곡 울려퍼지듯 매일 하루 다섯 차례, 코란을 읊는 기도소리가 이슬람 사원에서 울려퍼집니다. 터키에 머무는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반강제로 들어야 했던 코란 소리가 터키를 떠난 이후 들리지 않았을 때, 왠지 모를 고요함이 느껴졌던 건 그만큼 그들의 일상에 깊이 들어갔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개인적인 종교적 차이를 떠나 경건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에 엄숙함을 지키는 건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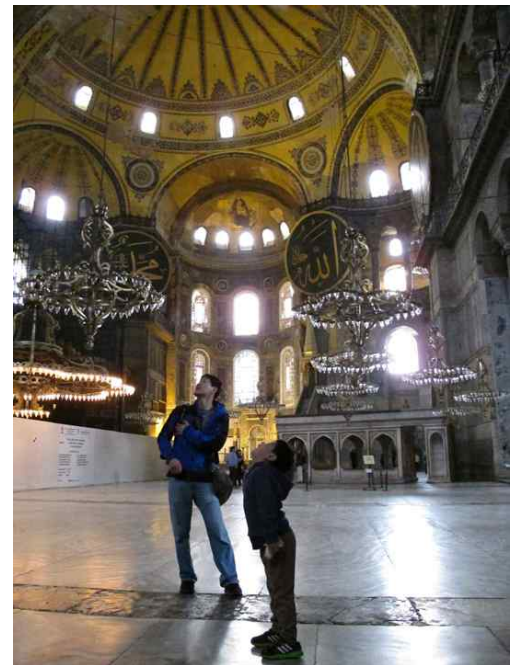




할 것도 없고,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곳을 관광하는 여행자 조차 여성이라면 히잡을 둘러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입구에 비치된 히잡으로 머리를 가린 아내와 함께 블루모스크 내부로 들어 갔습니다. 바닥에 깔린 폭신한 양탄자에 아이는 몸을 굴리고, 저희도 잠시 바닥에 앉아 긴 비행에 지친 몸을 쉬었습니다.

첫날은 블루모스크와 숙소 주변의 시내를 가볍게 한바퀴 돌며 여독을 풀고,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이스탄불 구경에 나섰습니다.

오전에 찾은 곳은 블루모스크와 마주 보고 있는 아야소피아 성당. 하기야 소피아(Hagia Sophia) 성당이라고도 합니다. 이스탄불이 동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이었을 당시 서기 330년경 콘스탄티누스 2세에 의해 세워졌고, 이후 여러번의 증개축을 거치며 기독교(그리스정교)의 사원으로 사용되던 건축물입니다.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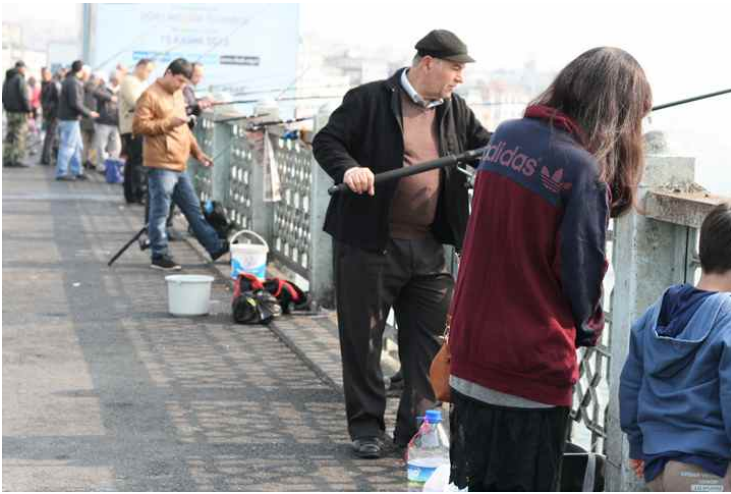
이후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 이스탄불이 점령되며 아야 소피아 성당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금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기독교의 성인이 그려졌던 성화(聖畵)는 모두 회칠로 덮혀버렸지요.



근대에 들어와 터키공화국이 수립되며 사원의 기능을 없애고, 회칠을 제거하고 벽화를 복원하여 현재는 박물관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아야소피아 성당을 마주보고 있는 블루모스크가 아야 소피아 성당에 자극을 받아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야 소피아 성당보다 더 근사하고 장엄한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라는 술탄아흐멧의 지시에 의해 1609년 경 블루모스크가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까요? 외관도 크기도 비슷하여 둘 중 어느 것이 블루모스크인지, 아야 소피아 성당인지, 여행책자만 보고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야소피아 성당을 나와 술탄 아흐멧 역에서 트램을 타고 갈라타 다리로 향했습니다. 갈라타 다리를 지나면 이스탄불의 최대 번화가 탁심광장이 나옵니다. 최근 반정부시위가 격렬하게 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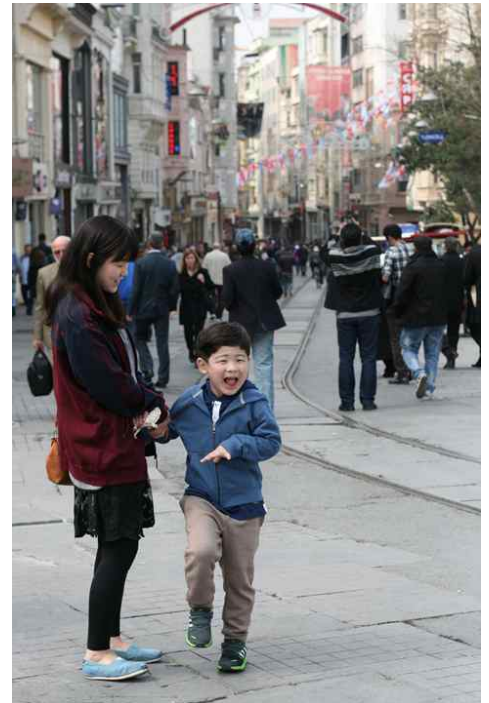


저 외신에 자주 등장한 곳이기도 하지요.

갈라타 다리 위에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는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즐기는 낚시라니, 저 역시 낚시대를 한 번 드리워보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낚시대를 빌려주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탁심광장은 이스탄불에서 가장 변화한 곳입니다. 우리의 여의도와 명동을 합쳐 놓은 듯한 분위기랄까요. 넓은 광장 주위로 세련된 상점들이 즐비하고,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광장보다 더 많은 비둘기 떼를 만날 수 있기도 하구요. 아들 녀석이 비둘기와 놀고

있는데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 손에 모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모이를 뿌리자 더 많은 비둘기들이 날아와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요. 고맙다고 눈인사를 건네는 제게 할아버지가 손을 쭉 내밀었습니다.

“2리라 (약 1,000원)”

“네?”

“비둘기 모이값을 줘야죠. 2리라 예요”

서울에서 눈감으면 코 베간다더니, 이스탄불에서 순식간에 2리라를 뜯었습니다. 그날 이후 낯선 사람이 건네는 건 절대 받지 말라고 아들 녀석에게 신신당부를 해야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긴 여행 중 선의로 건네는 호의까지 무시하게 되었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첫경험, 첫인상이 중요한가 봅니다.



어쨌거나 탁심광장 주위에서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공원에서 할아버지를 따라나온 멍멍이와 한참을

함께 놀기도 했구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터키 사람들은 먼 한국에서 찾아온 꼬마에게 친근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해가 진 뒤 블루모스크를 바라보며 먹은 케밥. 처음에는 근사한 기분으로 맛있게 먹던 케밥이었지만, 이후 터키 어느 곳에 가도 케밥 외에는 적당한 메뉴를 찾지 못해 정말 무르고 질리도록 먹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잘게 썬 요리에는 기본적으로 케밥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 같습니다. 살짝 누린내가 나는 듯



한, 터키 음식 특유의 그 향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듯 합니다.

이stanbul에 머무는 동안 탁심 광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명동처럼 쇼핑거리가 발달해 있고, 종로나 여의도 처럼 소소하게 시간을 보낼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추억의 전차도 있고, 라퐁젤 성을 닮은 갈라타 타워도 있습니다. 일단 젊은 사람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는 활기찬 거리이기도 했구요.



이집션 바자르에서 사람구경과 물건 구경을 하는 것도 소소한 볼거리 였습니다. 다만 선뜻 지갑을 열만한 상품이 없었다는 게 문제랄까요?

톱카피 궁전과 굴하네 공원은 숙소에서 가까워 즐겨 찾던 곳입니다. 특히 굴하네 공원은 굉장히 넓고, 잔디와 꽃, 나무가 많아 아이와 산책하기 무척 즐거웠던 곳입니다.





토요일 오후, 굴하네 공원에서 웨딩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커플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머리까지 가린, 생소한 디자인의 웨딩드레스가 이채롭습니다. 다른 관광객들도 신기해 보였는지 연신 촬영을 하더군요. 우리나라의 전통혼례를 보는 외국인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공주님 같아.”

저희 아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터키 신부를 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웨딩촬영을 하고 있는 커플에게 다가가



‘우리 아들이 당신 모습이 공주님 같다고 합니다. 기념사진을 함께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흔쾌히 허락해주더군요.

터키에서 한가지 신기했던 건, 길고양이들이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무척 상냥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보다 더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았어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들 녀석은 신이 났습니다. 주머니의 과자

를 꺼내 고양이만 보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함께 놀았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고양이들이 사람을 잘 따르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터키 사람들은 길고양이를 위해 고양이 사료를 일부러 사놓을 정도로



길짐승에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가게 앞에 놓인 고양이 밥그릇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길고양이를 위한 거였습니다.



열린 가게 문 사이로 들어와 진열된 상품 위에 제집 안방처럼 누워도 쫓질 않더군요. 심지어 판매중인 양탄자 위에서 잠든 고양이도 본 적이 있어요.

이스탄불에서 5일간 머문 뒤, 터키를 한바퀴 여행하기 위해 미리 예약해 두었던 렌트카를 찾으러 갔습니다. 탁심광장에 위치한 AVIS 렌터카 옆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었기 때문에 배려를 해준 건지.. 운이 좋게도 추가요금 없이 차량을 업그레이드 받았습시다.



달려 갑니다.

예약한 차량은 경차에 수동 차량이었는데, 내어준 차량은 준중형 차량에 자동기어(오토) 차량이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차에 올라, 첫 번째 여행지 부르사(Bursa)를 향해

한국에서 미리 준비했던 네비게이션을 창문에 부착하고, 예약해 놓은 호텔의 위경도 좌표를 목적지로 입력했습니다. 처음 사용해 보는 네비게이션이라 혹시 길을 못찾는 건 아닐까, 집사람에게는 티를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제대로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포루스 대교를 건너 아시아 사이드로 넘어가며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몇 백미터 앞에서 빠져 나가라, 몇 킬로미터 직진해라, 안내도 착착 잘 해줍니다.

초행길에 네비게이션만 믿고 갈 때, 동승한 사람이 ‘이 길로 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면 ‘네비가 시키는 대로 가고 있어’ 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제가 딱 그랬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터키 대륙 한 가운데에서 오직 저 네비만 믿고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걸까요? 네비가 시키는 대로 이동하다 보니,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페리 항구에 도착해, 어느새 페리에 차를 싣고 있더군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여긴 도대체 어디인가,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기능인데, 유럽에서 사용하는 네비에서는 페리를 이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 메뉴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저는 단순히 ‘최단거리’를 선택했었고, 최단거리 주행을 위해 네비게이션은 페리를 타도록 안내했던 것이지요.

덕분에 비용은 조금 더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1시간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4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부르사. 이스탄불은 이미 세계적인 관광도시라 물가도 비싸고, 외국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무뎠는데, 이 곳 부



르사에서는 저희 가족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보더군요. 물가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렴했구요. 숙박비용이나 식비는 이스탄불의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또 어찌나 친근하게 구는지, 웃음이 나올 상황도 많았습니다. 말 없이 다가와 자신을 가르키며 사진을 찍어도 좋았던 총각. 찍을 마음도 없었는데, 크게 웃으며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부르사에서의 첫인상 덕분에 앞으로의 터키 지방 여행이 무척 기대되고 설레었습니다.

사실 부르사를 찾아오게 된 건 이슬람교의 한 종파인 메블라나 의식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메블라나교는 터키의 콘야 지방에서 파생되어 터키 전역으로 퍼져나간 이슬람교의 한 종파인데, 신과 교감하기 위한 특이하고도 신비로운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운영하는 정식 의식은 콘야와 이곳 부르사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기에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던 것이지요.



메블라나 의식을 수행하는 사제들이 입장하여, 경건한 음악에 맞춰 눈을 지그시 감고 빠른 속도로 몸을 회전합니다. 하늘을 향하는 손은 신을 의미하고, 땅을 가르키는 손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지요. 빠르게 몸을 회전하며 무아지경 빠지게 되는 순간 신과 교감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 ‘수피 댄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삼십 여 분, 경건한 의식을 마치고 사제들이 자리에 앉아 소리 죽여 숨을 고르는 시간, 그들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 아들은 어떤 느낌으로 지켜 보았을까요?

부르사를 떠나 다시 셀축으로 향합니다. 터키 여행을 하는 분들은 보통 이스탄불을 출발하여 시계방향으로 돌아 다시 이스탄

불로 돌아오는 일정을 짜는 편인데, 저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의 루트를 잡았습니다. 4월초는 아직 추운 계절이라 한시라도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그만 경찰의 스피드건에 잡혀버렸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는데, 마을 근처를 지날 때에는 제한속도가 갑자기 확 낮

아지는데, ‘별 일이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달리다 보니 그만 단속에 걸려버렸습니다.

과태료는 175TL, 우리돈으로 9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 렌트카를 반납할 때 고지서와 함께 벌금을 주면 렌터카 사무실에서 처리하기 마련인데,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1/4을 경감해준다는 말에 홀려 직접 납부를 하려다 나중에 조금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셀축에 오니 남부지방 답게 가로수에 오렌지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오렌



지 가격이 그래서 저렴했던 걸까요? 길가의 오렌지를 따먹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셀축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는 로마시대의 유적이 잘 보존된 에페소 유적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성모님 집터가 셀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승천 후 성모님을 모시고 에베소로 오게 되는데, 에베소의

현 지명이 셀축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에서 성모님 동상과 요한의 교회터를 볼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지요.



성모님 집터 성지(聖地)에서 이번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은 터키에서도 유명한 에페스 유적에 다녀왔습니다. 그리스부터 로마시대까지 번성했던 도시라고 하는데,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도시의 흔적만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녀석은 또 신이나서 뛰어 다녔습니다. 신기한 곳도 많고, 고양이 가 무척 많았거든요. 하루 종일 고양이와 술래잡기를 하느라 저녁에는 그만 골

아떨어져 버렸습니다.



평생 만져볼 고양이를 아마 이날 하루에 다 만져 보았을 것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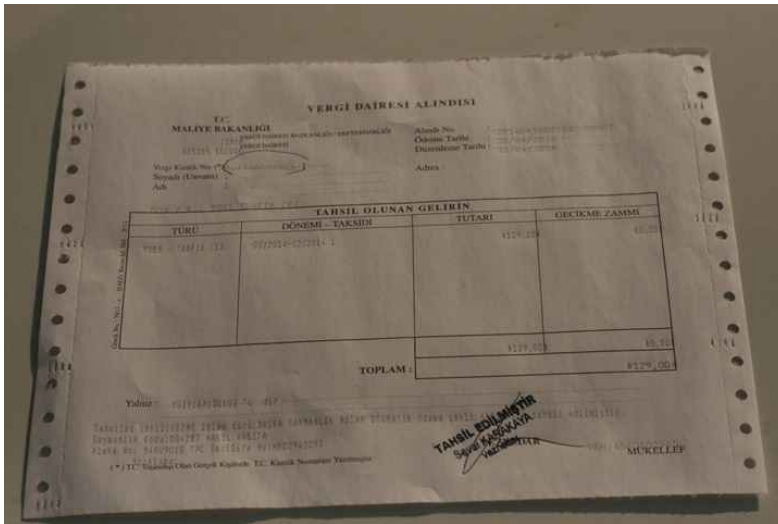
아요. 셀죽 시내 만큼 넓은 에페스 유적, 세계사 시간에 배운 유적 위를 걷고 있노라니 잠시 비현실적인 기분이 듭니다.



에페스 유적을 나와 늦은 오후 잠시 들른 시린제 마을. 전통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해서 큰 기대를 안고 갔습니다. 구불 구불 산길을 한참 올라 간 곳이었는데, 전통가옥은 비교적 잘 보존 되어 있었지만, 너무 상업화 된 모습에 조금은 실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설 새 없이 한국인 단체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밀려드는 모습에, 우리

의 지나친 방문이 이 마을을 바꾸어 놓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셀축 시내는 무척 작아서 마음만 먹으면 30분 안에 걸어서 한바퀴를 둘러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동네인데도 있을 건 다 있어서, 이곳 셀축 세무서에서 과속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었지요.



셀축 시내에 은행이 많이 있길래 과태료 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갔는데, 납부자 정보를 입력할 때마다 에러가 나온다고,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결방법을 물어보자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차로 5분 이내 거리라 셀축을 떠나는 날, 세무서를 찾아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와 여차저차 설명을 하고는 작성을 하라며 양식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여권번호와 렌트차량 번호 등등 빠짐없이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을 했더니, 맨 아래 빈칸에 아버지 성함과 어머니 성함을 적으라고 하더군요.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구요?’ 라고 재차 확인을 했더니, 역시나 엄마, 아빠 이름을 적으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 선생님께 반성문을 제출하는 기분으로,
“저,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라고 했더니, ‘No Problem’ 이라며 어서 적으랍니다.

왠지 돌아가신 아버지와, 한국에 두고 온 어머니께 무척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타국에 와서 큰 죄를 저지른 것 같고..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이유를 찾아보니, 이슬람 문화권은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서 보통 ‘누구의 아들 아무개’로 적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터키군의 전사자 묘비에도 그런 식으로 써있다고 해요. 어쨌거나 다시는 과속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셀축에서 다시 몇 시간을 달려 석회봉으로 유명한 파묵칼레로 향합니다. 자동차 여행도, 기차로 하는 여행도 그렇지만, 한 도시에서 적어도 2박 이상을 해야 그 도시를 잠깐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 간 이동이 보통 반나절 이상 걸리다 보니, 저녁 무렵 도착해서 하루 자고 다음날 떠나게 되면 정말 무얼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거든요.



파묵칼레는 터키어로 ‘목화’와 ‘성(城)’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새하얀 목화꽃의 성이라는 뜻이지요.

석회암 사이로 흐르는 따뜻한 온천수가 오랜 세월 동안 흐르며 층층이 신비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은 날이 쌀쌀한데, 물이 따뜻하여 아들 녀석에게는 수영복만 입고 물에서 놀게 해주었습니다.



층층이 고여 있는 온천수에는 수영복만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체면을 차려 발만 담그고 놀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아쉽기도 합

니다. 아들 녀석은 오랜만에 수영을 해서 그랬는지, 여행을 떠난 뒤로 오늘 하루가 가장 재미있었다고 말하더군요. 저 역시 이곳이 터키에서 꼭 보고 싶은 곳 세 곳 중 하나였기에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터키 여행을 계획하며, 카파도키아의 기암괴석과 그 사이로 떠오르는 열기구, 메블라나교의 세마의식, 그리고 파묵칼레의 석회암층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이 되어, 이제 다시 석회봉을 내려 갑니다.

“내일 또 수영하러 올까?” 아들이 묻는 말에 미안하다며 머리만 쓰다

듬어 주었습니다. 볼거리가 많은 터키에서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직은 4월 중순, 한낮을 제외하고는 날이 쌀쌀한 계절이라 어

서 빨리 남부의 휴양도시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정은 터키의 최고의 휴양도시, 안탈리아로 정했습니다.



안탈리아는 제법 규모가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 도심지 안에 옛 건물을 허물지 않고 보존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칼레이치’ 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올드타운(Old Town)’ 이라고 표기 하는데, 이건 유럽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구시가를 나타내는 공통된 표기 였습니다.



트램을 타고 안탈리아 고고학 박물관에 놀러가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나른히 별을 찍기도 하고, 이 휴양도시에서 나흘을 빈둥거리며 놀았습니다. 딱히 볼거리는 없었지만, 구시가를 걷고 사람 구경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해안을 끼고있는 구시가지에는 인근 바다를 가볍게 돌고 오는 유람선 선착장이 있습니다. 이게 부르는 게 값이라, 호객행위도 심한데, 비싸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면 부르는 값이 금세 반값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처음 부른 값의 반값에, 아이는 무료라기에 못 이기는 척 배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동양 꼬마 아이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고, 같이 사진을 찍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가 바다로 꽤 나오자 흥겨운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의아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추기 시작하네요.





터키 여자아이들이 아들 녀석보고 같이 춤을 추자고 이야기 했는데, 이 녀석이 부끄러움을 타고 엄마 품으로 숨었습니다. 어쨌거나 배 위에는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고, 다소곳 해보이던 젊은 여자들도 리듬을 타며 춤을 추었습니다. 안탈리아,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아들 녀석이 귀여웠는지, 번쩍 들어 한바퀴 돌려주고 내려 주는 아저씨가 있는가 하면, 한류에 빠졌다며 한국어로 말을 걸어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터

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이라고 들었는데, 안탈리아에서 특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낮에는 지중해의 해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일광욕도 하고, 밤에는 아름다운 구시가를 거닐었습니다. 참 기분 좋은 한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행의 첫 싹표를 이 곳에서 찍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음 여행지는 카파도키아, 안탈리아에서 하루에 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라 중간에 위치한 콘야에서 일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여행에 익숙해 졌을 무렵에는 600km 정도는 하루에 주파하기도 했는데, 여행을 시작할 무렵에는 하루 300km 이하 이동을 기준으로 삼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콘야에 들르게 되었지요.

대체로 나무가 없고 돌산이 많은 터키의 도로. 덤불사이로 풀을 뜨는 양떼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양치기는 산 아래의 길가를 걷고, 양치기개가 열심히 주인이 가는 방향으로 양을 몰고 갑니다.



콘야를 떠나 카파도키아로 향하는 길, 드디어 사진으로 많이 보던 눈에 익은 지형이 나타났습니다. 카파도키아에 도착을 한 것이지요.

카파도키아를 현지어로 괴레메(Goreme) 라고 하는데, 이는 ‘보아서는 안되는 곳’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괴한 지형 덕분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사암(砂巖)이 오랜 세월 동안 풍화되어 어느 곳에서도 쉬 볼 수 없는 풍경





을 만들어 냈지요. 삐죽 삐죽 솟은 모양이라던가, 혹은 버섯처럼 생긴 모양 등 지구가 아니라 외계의 어느 행성에 온 듯한 착각이 들게 합니다. 영화 스타워즈

의 촬영이 이곳 카파도키아에서 이루어진 것도 그러한 이유겠지요.

괴레메 시내를 무척 작아서 10~20분이면 한바퀴 둘러볼 수 있는데, 그래도 유명한 관광지답게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닷새간 머무는 동안 맛집을 찾아보기도 하고, 유명한 곳은 빠짐 없이 찾아다녀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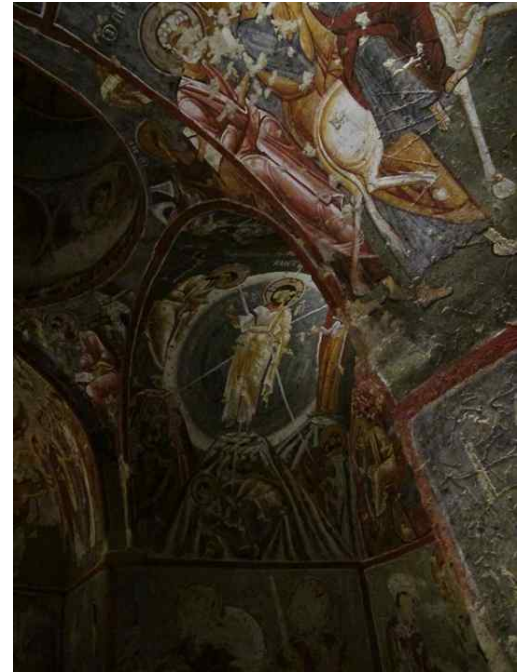
호텔에서 괴레메 지역의 지도를 한 장 얻어, 로즈밸리투어(레드투어)와 으흐랄라계곡투어(그린투어)에 대한 루트도 미리 공부



했구요. 우선 괴레메 시내와 저희가 머문 호텔에서 가까운 로즈밸리 계곡부터 찬찬히 구경을 하였습니다. 힘을 주어 만지면 손끝에서 바스라지는 사암, 옛

사람들은 이 사암 계곡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박해를 피해 숨어든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주 했다고 하는데, 이따금 동굴에서 기독교 성화(聖畵)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괴레메 야외박물관에 가면 보존상태가 좋은 성화를 볼 수 있구요. 하지만 로즈밸리 전체가 근사한 세트장 같은 곳이기때문에, 굳이 야외박물관에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괴레메 시내에서 자동차로 10~20분 정도 거리에 우치사르 성과 피존밸리가 있는데, 이곳 역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행객들은 트래킹을 하기도 하구요. 아들 녀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만 되었더라면 한 두 시간이라도 걸어 볼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남더군요.



나쁜 기운(악귀)을 쫓아준다는 나자르 본주(악마의 눈)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나무, 그리고 십자가 대신 초승달이 그려진 앰블런스. 터키가 아니면 보기 힘든 모습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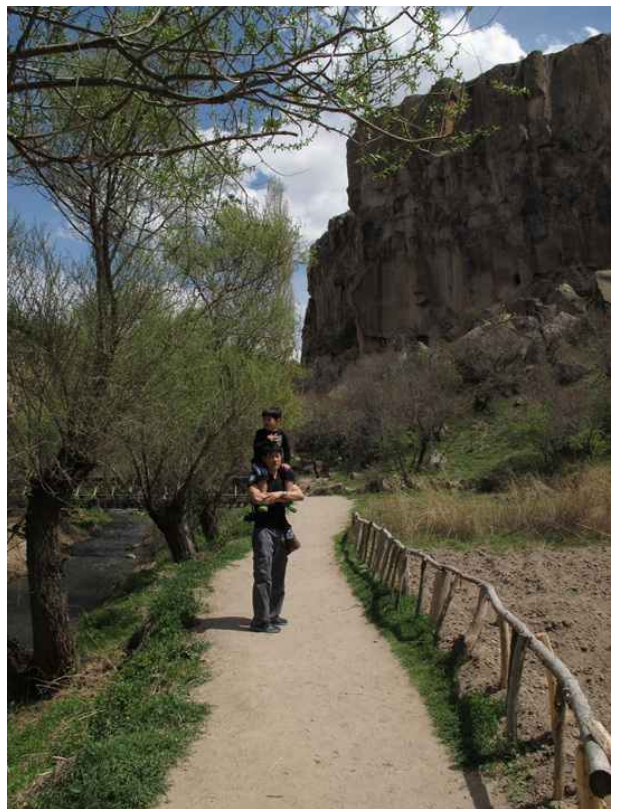
이슬람교의 태생 자체가 기독교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분쟁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십자군 전쟁에서 원정군(침략자)은 기독교였고, 격전지는 이슬람 국가였으니, 민간인의 피해 또한 이만저만하지 않았겠지요. 당시 이슬람 문화권에 남겨진 그림을 보면 십자군은 대부분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들의 무기에 새겨진 십자가 역시 악마의 상징처럼 인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서구 문화권에서는 평화의 상징인 십자가가 이슬람문화권에서는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어 지고, 대신 이슬람에서 신성시하는 초승달 문양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요.



다음날은 흔히 그린투어라는 여행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으흐랄라 계곡에 다녀왔습니다. 괴레메에서 차로 한 시간 이상을 달려야 갈 수 있을 만큼 거리가

먼 곳에 있었구요.

로즈밸리의 기이한 사암지대에 너무 감탄을 했기 때문일까요? 으흐랄라 계곡에서는 그닥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날은 덥고, 물이



졸졸 흐르는 시내 외에는 딱히 볼거리가 없어서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하긴 했네요. 계곡을 빠져 나와 마을을 지나는데, 길가 한 켠을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아들 녀석에게 저기 거북이를 보라고 말해주었더니 바로 차에서 내리더군요.



거북이 한 마리를 잡고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저희 아들의 볼을 꼬집고 흔들며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금세 저만치 도망가고 있는 거북이를 한 마리 더 잡아 오셨습니다. ‘이 거북이, 혹시 키우는 건가요?’ 라고 여쭙보니 ‘설마요.’ 라고 대답하며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이 동네는 거북이가 길고양이 처럼 그냥 막 돌아다니나 봅니다. 서로 짧은 영어로 한참을 대화하다 인사하고 헤어지려는데, 그냥 보내기 아쉽다며 말린 과일을 한 응큼 쥐어주시네요. 어느 나라든 시골 인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한국에 거북이를 가져가라며 박스를 가져온다길래 한사코 마다했네요.



괴레메의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는 그린투어 코스를 참고하여 데린구유 지하도시에도 들렀습니다. 옛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 세운 거대한 도시인데, 지하 8층

규모에 최대 2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곳에 또 오게 된다면 그린투어 코스는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괴레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시내 한가운데 있는 선셋포인트에 올라 일몰을 감상했습니다. 어느 자유여행객이 괴레메를 여행했던 글을 올리며 일주일의 머물다가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제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터키에서의 일정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이른 새벽 잠에서 깨어 부산을 떨었습니다. 기대해 마지 않던 별론(열기구)투어를 예약한 날이었거든요.



터키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건, 그리고 터키여행을 결심하게 만들어주었던 건, 바로 카파도키아 열기구 사진이었습니다. 동이를 무렵 백여개의 열기구가 동시에 떠오르는 장관, 그리고 하늘에서 바라보는 일출, 생각만 해도 근사하지 않은가요? 열기구 투어 비용은 여행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사람 당 100유로 정도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또 언제 터키에 올 수 있겠냐는 마음으로 예약을 했지요.



여행을 하다보면, 아니 어찌보면 세상 일이 다 그렇겠지만,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여행 중 열기구 투어에서 그 첫 번째 실망을 경험하게 되었구요. 나흘 전 괴레메에 도착한 첫날 열기구 투어를 예약했을 때에는 원하는 날짜를 아무 때나 골라도 좋으며, 저희를 최대한 배려해줄 것처럼 친근하게 굴더니만.. 예약한 손님들이 많으며, 저희 동의도 구하지 않고 2차 비행(일출을 보고 내려온 열기구를 늦게 이용하는 스케줄)으로 순서를 미루어 버렸습니다.



강하게 항의해보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환불을 해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구요. 아쉬운 건 저였기에 어쩔 수 없이 2차 비행이라도 승낙해야 했



습니다. 해가 이미 하늘 높이 솟아 오른 뒤였고, 하늘에 떠있는 열기구도 그리 많지 않아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아쉬운대로 열기구 여행을 즐기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약 한 시간 동안 열기구에 올라 카파도키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열기구에는 GPS가 있어, 열기구를 회수하고, 승객들을 숙소로 보내줄 차량이 지상에서 열심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기구가 바닥에 닿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달려 들어 넘어진 열기기를 바로 세우고 승객들을 바구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직원들이 작은 삼페인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엄마가 도마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어제 거북이에 이어 오늘도 뿌듯한 수확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 할 수 있게 사진을 찍어 달라던 녀석. 엄청 뿌듯해 합니다. 터키가 아니라면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었을까요? 터키로 여행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했기에 오늘은 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집니다. 숙소에 돌아와 잠시 몸을 쉬고 다시 로즈밸리로 나왔습니다. 며칠 전 지나가는 길에 보았던 승마장에 가서 말도 구경하고, 가격이 맞으면 승마도 체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한국에서 승마장을 몇 번 데려간 적이 있어 그나마 유경험자(?) 이고, 저와 와이프는 말을 처음 타보는 거라 걱

정이 많이 되었는데, 터키 특유의 느긋한 대답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No Problem (괜찮아요)’ 다행히 승마장 인부 누군가의 아들로 추정되는 소년이



저희 아들을 안고 말에 올랐습니다. 제 눈에는 둘 다 똑같이 어린 녀석인데, 저희 아들을 보고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터키에서 자존감이 엄청 높아졌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귀엽다는 말을 던지며,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꼬집고, 같이 사진을 찍고 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녀석은 본인이 아주 귀엽고 깜찍하다는 착각에 빠져 한동안 그 늪에서 헤어나 오질 못했습니다.



말을 걷게 하고, 멈추게 하는 몇가지 동작을 간단히 익힌 뒤 승마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말을 타고 한 시간 가량 로즈밸리를 돌고 오는 것이지요. 어른 남자여서 젊은 말을 골라준 건지,

제가 탄 말(馬)은 제 말(語)을 듣지 않고, 어찌나 제멋대로 인지

꽤나 고생을 하며 투어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평생 처음으로 말을 타보는 경험에 신이 났었습니다.

며칠간 머물며 그새 정이 든 괴레메를 떠나 이제 앙카라로 향합니다. 앙카라로 가는 길, 거대한 소금호수를 만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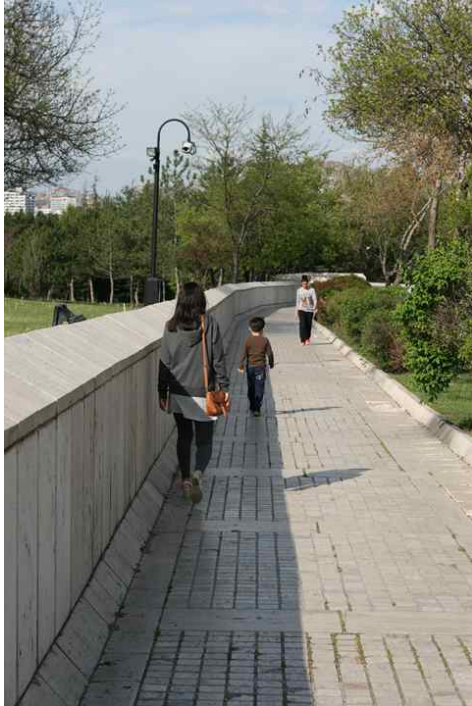


이 소금호수(Tuz Golu)에서 채취하는 소금이 터키 전체 소금 소비량의 60% 정도 차지 한다고 합니다. 우기에는 호수가 되고, 건기에는 사막처럼 물이 말라 소금사막이라 불린다고도 하네요.



처음에는 좋다고 뛰어다니던 녀석이 이내 발바닥이 아프다며

빨리 안아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발 밑의 소금 결정이 따갑긴 하더군요. 소금호수에서 시간을 지체했지만, 다시 차를 달려 금세 앙카라에 도착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탄불이 투르크 제국의 오랜 수도였지만, 어찌되었거나 터키의 현재수도는 이곳 앙카라(Ankara)입니다. 부패한 왕정을 몰아내고 공화제를 수립한 터키의 초대 대통령 아타튀르크에 의해 수도를 이곳 앙카라로 옮기게 되었거든요. 지금의 그리스와 동유럽 영토의 일부까지, 예전에는 모두 투르크 제국의 영토였으니 당시에는 이스탄불이 수도의 역할을 하는게 당연했겠지만, 근대사에 들어오며 유럽에 속하는 지역의 영토를 대부분 잃고, 이스탄불의 전략적 중요성도 사라졌으니, 현재의 터키 국토 중앙에 위치한 앙카라로 수도를 옮기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었을 겁니다.

앙카라에는 회색빛 현대 건물 외에는 딱히 볼게 없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굳이 동선에 이곳을 포함 하였습니다. 아타 튀르크의 유해를 모신 영묘(頌墓)를 한번 방문해볼 생각으로요.

우리의 현충원 만큼 크고 넓은 공원 부지 한 가운데 위치한 아타튀르크 영묘. 호텔이 마침 영묘 근처에 있어 걸어서 갈만한 거리였는데, 지도를 보니 입구까지 돌아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았습니다.

“우리 그냥 공원을 가로질러 갈까?”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더니, 와이프도 잠시 고민을 하다 순순히 제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1미터 정도



되는 담을 가볍게 뛰어넘어 공원을 가로 질러 가는 길, 저희 뒤로 부산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군요. ‘우리 말고도 가로 질러 가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네.’ 라고 생각하며 돌아보았더니 군인 두 명이 완전무장을 하고 달려오고 있더군요.

그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휴가 나온 군인들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저희를 보고 어디에 가고 있다고 물어보는데, 순간 ‘무언가 잘못 되었구나!’ 아차 싶은 겁니다.

아타튀르크 영묘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냐고 물어 보는 중, 이어서 군견까지 앞세운 십 여명의 군인들이 달려와 저희를 포위

했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이 사태를 어찌 설명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저의 입에서 짧은 영어가 속사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착각을 했다. 공원이라고 생각했다. 군사 지역이라는 표지를 보지 못했다. 우리는 단순히 아타튀르크 영묘로 가던 관광객들이다.”

그제서야 긴급 출동했던 군인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살짝 미소를 보여주더군요. 어쨌거나 일단 자기들과 함께 가야한다며, 저희를 승합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 가더군요. 그 와중에도 상황을 보고하는 무전을 계속 주고 받고.. 군인들이 데려간 곳은 보안부 비슷한 사무실이었고, 저희 여권을 복사한 뒤 돌려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문을 통해 들어오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구요. 무슨 일이냐고 울먹이던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와이프한테도 불 낫이 없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킬킬거리며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얼마나 놀

랐는지.. 그래도 앙카라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식은땀 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터키에서의 마지막 여행지 사프란볼루(Safran Bolu)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아쉬움이 뚝뚝 묻어 나는 것 같습니다.



사프란볼루는 ‘사프란 꽃이 많이 나는 마을’이라는 뜻 이라고 합니다. 향신료의 일종인 사프란이 이 곳의 특산품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사프란 때문에 유명해진 건 아니고, 이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터키 전통 가옥촌이기 때문이지요.

이곳이 현대화의 바람을 피해 전통가옥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려면 그리스 독립전쟁까지 거슬러 가야 합니다.



그리스가 투르크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1800년 경 그리스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지요. 이어서 투르크와 그리스 사이에 인구교환 협정이 있었는데, 그리스에 거주하고 있던 투르크인들은 터키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터키 지역에 거주하던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프란볼루에 거주하고 있던 대부분의 주민이 그리스계 였고, 그래서 한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 되어 현대화, 개발화의 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해요.



터키의 아름다운 시골마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하는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제게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외곽의 로마시대 수도교(인제카야 수도교)를 보러가기도 하고, 협곡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크리스탈 테라스에 짬을 내어 놀러가기도 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신시가로 나와 쇼핑과 식사를 즐겼습니다. 아들 녀석은 역시나 광장의 비둘기를 가장 좋아했구요.

사프란볼루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인접도시 아마스라에 다녀왔습니다. 터키 남쪽과 서쪽의 바다가 지중해와 인접하고 있다면, 이곳 북쪽의 바다는 흑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프란볼루에서 무료한 하루를 보내느니 흑해라도 구경하고 오자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자동차로 약 두 시간 정도 달리면 흑해의 조용한 항구도시 아마스라가 나옵니다.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지요.





조용한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낼까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마을은 축제가 한창이더군요. 아이들의 장기자랑도 볼 수 있었구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니 오늘이 터키

의 어린이날(Children's day) 라고 합니다. 더불어 터키공화국의 첫 번째 의회가 개최된 역사적인 날이기도 했구요. 오늘 하루는 터키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축제를 구경할 수 있었을 텐데, 하필 가장 조용한 시골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대로 바닷가도 거닐고, 맛있어 보이는 식당에서 배도 채웠습니다. 물가가 저렴한 터키에서도 이곳 아마스라의 물가가 가장 저렴



했습니다. 괜찮은 식당에서 저희 세식구가 먹을 음식을 이것 저것 배블리 시켰는데도 우리돈으로 만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역시 관광지에서 멀어질수록, 현지인들이 즐겨찾는 식당에 갈수록 저렴한(정상적인) 가격으로 그 나라를 즐길 수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렇게 마을 구경을 하며, 사람 구경을 하며 걷고 있는데, 아나나 다를까요 또 현지인들이 오더니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더군요. 이건 나중의 일인데, 터키를 떠난 뒤 한참 지나고 저희 아들이 조용히 제게 묻더군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사진 찍자고 안해요? 왜 귀엽다고 안해?’ 터키 덕분에 아들 녀석의 자존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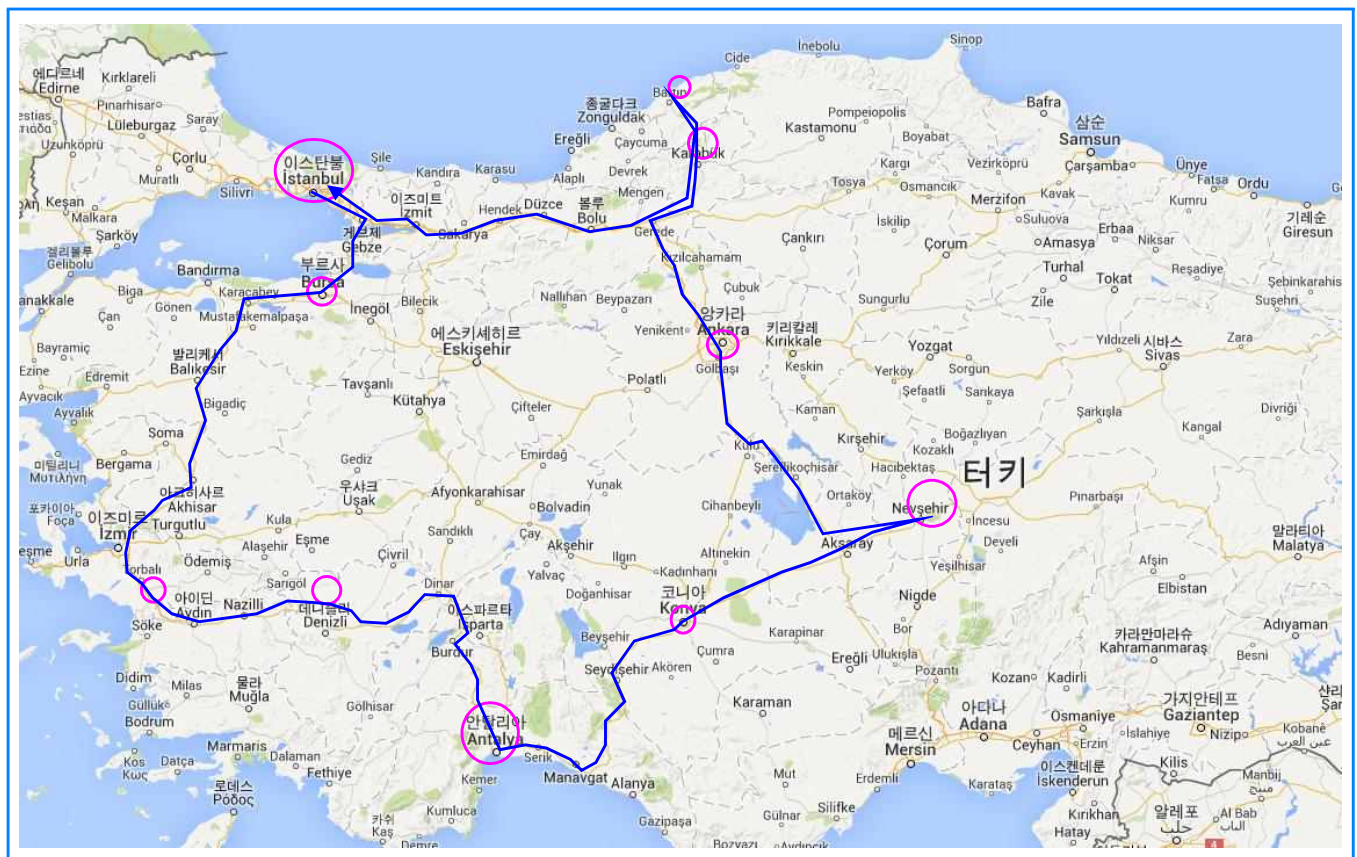
이제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 갑니다. 터키에서의 일정을 끝내고 스페인으로 떠나야 하니까요. 이스탄불로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아가씨가 아들 녀석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며 친근하게 굴기도 하고.. 터키 사람들에게 느낀 따뜻함은 쉬 잊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 묵었던 이스탄불의 숙소로 다시 돌아와, 렌트 카도 반납하고, 기본적인 스페인어도 공부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찾을 일이 있을까요?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잘 있어요, 터키. 당신들이 보여준 친절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터키에서의 여정 - 총 이동거리 3,100km]

정열의 나라, 스페인



o 여행기간 : 4.26 ~ 5.14 (19일)

o 여행도시 : 마드리드, 톨레도, 그라나다,
론다, 말라가, 네르하,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곧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유럽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드리드 공항 1터미널에서 내려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4터미널로 왔습니다. 도심까지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항철도



쎬르까니아스(Renfe cercanias)는 4터미널에서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쎬르까니아스의 종착역이 저희가 묵을 숙소인 마드리드 왕궁 역(Principe Pio) 근처 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정열의 나라 스페인,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정열적으로 키스

를 나누는 커플들을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동안 세 쌍이나 목격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아랑곳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입을 맞추는 모습에, 몇시간 전까지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권에서 머물다 온 제가 공연히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숙소를 옮기면 우선 가까운 할인마트에 가서 물과 간단한 요깃거리를 사놓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근처 슈퍼마켓을 찾았는데, 정육코너에 하몽(jamon)이 주렁주렁 걸려있더군요.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여 발효한 일종의 햄 인데, 궁금한 마음에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홍어 삭는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맞지 않는 음식일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자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소매치기로 유명한 도시가 1위 프랑스의 파리, 2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3위 이탈리아의 로마, 4위 스페인의 마드리드 라고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파리와 로마, 마드리드에서 소매치기를 만났었기에 심히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대비를 철저히 하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마드리드에서의 일정은 짧게 잡았기 때문에 머무는 동안 최대한 많은 걸 보고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동아 마라톤 대회 같은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었나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마라토너들과 관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회의 종류와 성격이라도 알면 더 흥미로웠을텐데, 아쉽게도 관련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걷다보니 산미겔 시장을 만났습니다. 마드리드 시내가 좁다더니 일부러 찾아간 것도 아닌데, 여행 공부를 할 때 보았던 눈에 익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 옵니다.

궁금한 마음에 들어가 보았는데, 실내 인테리어도 훌륭하고, 눈길을 잡아끄는 먹거리가 많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케익부터 여러 종류의 과일과, 또 빼놓을 수 없는 하몽까지..



사람들 틈에 섞여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이내 다시 오늘의 목적지 '엘라스트로(El Rastro) 벼룩시장'을 향해 일어났습니다.



엘라스트로 벼룩시장은 매주 월요일에만 열린다고 합니다. 긴 도로의 좌우측과 골목골목 벼룩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해 놓는데, 이런 저런 물건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집사람은 가족으로 만든 작은 크로스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고, 저와 아이는 신기한 물건과 거리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족으로 만든 가방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족제품이 정말 저렴했습니다. 나중에 바르셀로나에서는 가죽공방을 찾아가 근사한 솔더백을 10만

원대에 구하기도 했구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라, 거리공연을 하는 버스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실력들은 또 어찌나 좋은지,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귀기울여 듣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거리 공연들도 여행의 작은 즐거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종류의 거리공연을 구경하지 못한 것 같아요. 기껏해야 홍대 놀이터에서 밴드의 음악을 들은 정도랄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리공연을 활성화 하는 것도 그 도시를 활기차 보이게



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리의 노련한 바이올리니스트의 공연은 라디오를 통해 듣는 클래식 음악 보다 더 깊은 여운을 남겨주었고, 거리에서 본 익살맞은 광대의 코미디는 저희를 숨도 못쉬고 웃게 만들었거든요.

벼룩시장 구경을 마치고 이제 프라도 미술관을 향해 걷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곳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애매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 하루 종일 걷고 또 걷는 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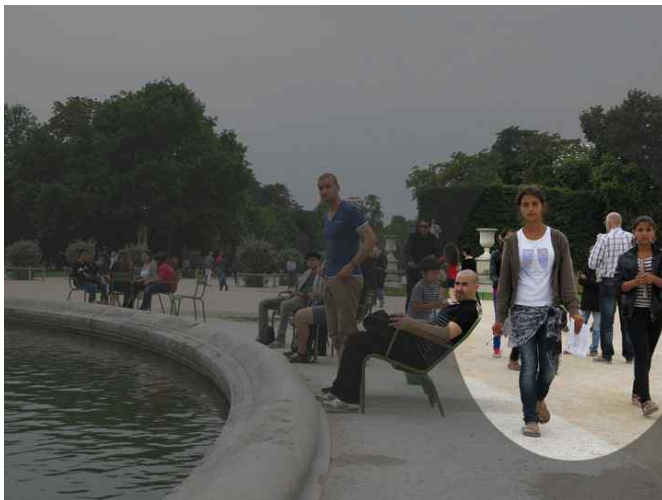
프라도 미술관으로 걸어가는 도중 와이프가 불안한 목소리로 ‘이상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라고 하더군요. 얼른 고개를 돌려 확인해보니 짐시

로 보이는 여자 둘이 우리 눈치를 살피며 바짝 뒤에 붙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와이프와 아이를 얼른 벽으로 붙여 세우고 저도 그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소매치기로 보이는 짐시 두 명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노려보았지요.

소매치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되면 어쩔 줄 모르고 주저할게 아니라, 가방 등 귀중품을 움켜쥐고 소매치기와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네가 나쁜 목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허튼 짓을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려보고 있으려니 집시 두명은 멈칫거리다 이내 체념한 표정으로 저희 앞을 지나쳐 갔고, 바로 다음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일행으로 추정되는 집시 4~5명이 마찬가지로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저희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여행 초기에는 집시인지 아닌지 미심쩍은 상황이 여러번 있었는데, 여행 중반으로 들어설 무렵에는 슬쩍 눈치만 보아도 소매치기인지 아닌지 구별 할 수 있는 경지가 되었지요.



집시(소매치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예 관련된 이야기를 다 풀어 놓아야 겠습니다. 위 사진은 파리의 뿔리리 정원과 몽마르뜨 언덕 인근에서 만난 집시들의 사진입니다.

좌측 사진의 밝은 원 안의 허름한 옷을 입은 소녀 두 명, 오른쪽 사진의 남미 인디오(멕시코)처럼 보이는 여자 일당입니다.

(우측 사진의 흑인 가족은 평범한 관광객 입니다)

유니세프 모금 운동을 하는 것처럼 가짜로 만든 서명용지를 들고 와서, 설명하는 척 서명판으로 시야를 가린 뒤 다른 일당이 슬그머니 소매치기를 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범의 소매치기가 있구요(좌측 사진 소녀의 손에 들린게 문제의 서명판 입니다), 조용히 뒤에 따라 붙어서 주머니나 가방을 털어가는 고전적인 수범의 소매치기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문이 닫히려는 순간 지갑을 낚아채는 소매치기도 보았습니다.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제가 목격한 대부분의 소매치기 또는 집시들의 외형은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미 인디오와 비슷하게 생겼더군요. 갈색 피부에 갈색 눈, 꾀죄죄해 보이는 옷차림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간혹 멀쩡해 보이는 옷차림의 소매치기도 없지는 않았지만요.

소매치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고액의 화폐나 신용카드 등 귀중품은 나 자신도 꺼내기 힘든 몸의 가장 깊은 곳에 보관해야 하며, 외투 주머니나 바지 주머니처럼 바깥으로 노출된 주머니에는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가방은 백팩보다는 크로스백, 슬링백처럼 내 몸의 앞이나

옆에 위치하는 가방을 매야 하고, 가방 지퍼에는 작은 자물쇠를 걸어 놓아야 겠지요. 손쉬운 먹잇감이 널려있는데, 굳이 자물쇠를 채운 가방을 뒤흐리는 않을테니까요. 내가 꺼내기 힘들다면, 소매치기는 더욱 가져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한 덕에, 5개월의 긴 여행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소매치기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마드리드의 여행기로 돌아가야겠네요.

프라도 미술관은 고야, 루벤스 등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 마드리드를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들러보는 미술관 입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는 약 2시간 동안 무료 개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마침 마드리드를 여행하는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공짜로 명화를 감상할 겸 시간에 맞춰 미술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오후 4시 전 즈음 프라도 미술관에 도착했는데, 벌써부터 무료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건물을 한바퀴 돌고 있더군요. 어린 아들 녀석이

한 시간 동안 얌전히 줄을 서 있어줄 것 같지 않아, 5시가 넘어 입장이 시작될 무렵 뒤늦게 줄을 섰습니다. 그래도 줄이 빠르게 줄어들어 20여 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드리드를 떠나 스페인의 남쪽방향으로 내려 갈 생각입니다. 스페인에서 14일간 이용할 생각으로 예약해놓은 렌트카를 찾아왔습니다. 스페인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바르셀로나에서 일주일 간 체류라,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7일 간의 임차비용이 아까워, 번거롭지만 여러 번으로 나누어 차량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는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톨레도(Toledo) 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옛 중세도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본 도시는 영화 ‘반지의 제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곳이 정말 유럽이구나.. 혼자 감탄을 하고 있으려니 집사람이 옆에서 피식 웃습니다. ‘당신 스타일 이구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근사해 보이고, 마음이 설레입니다.

톨레도에는 유명한게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기(철) 제련, 두 번째가 금은세공, 마지막 세 번째가 수녀님들이 만들었다는 마사판(빵)입니다. 도시 전체가 관광지라 골목골목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주로 판매되는 상품이 칼, 금은세공품, 빵 이었습니다. 저도 기념으로 근사한 주머니칼을



하나 구입했지요. 우리나라에 비해 가격도 무척 저렴했구요.



수녀님들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유명한 제과점에 들어가 빵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별다른 생각 없이 여정에 넣었는데, 예상 외로 상당히 근사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이 느낌은 스페인을 떠날 때까지 꼭 이어졌습니다.



톨레도를 떠나 좀 더 남쪽, 그라나다를 향해 갑니다. 스페인이 유럽에서도 최남쪽, 아프리카 바로 위 지역이라 그런지 기온이 초여름처럼 살짝 덥게 느껴 집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며, 주위 산과 밭에 온통 올리브 나무가 심겨진 모습에 감탄을 하다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올리브 나무. 심지어 산을 짝 갈아 옆고 올리브만 심겨진 곳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올리비를 누가 다 소비하는 걸까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스페인에서 재배된 올리브가 유럽 시장의 1/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남부지방은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적어 올리브 외의 작물을 키우기가 어렵다고도 하구요.



그라나다 시 외곽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전원 풍경이 근사한 목가적인 곳이라는 후기를 읽고 갔는데, 역시 주위 풍경이 예술이었습니다. 넓은 초원 위, 한가로이 말이 풀을 뜯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라나다에 오면, 아니 스페인에 오면 꼭 보고 가야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알함브라 궁전

입니다. 저희도 알함브라 궁전을 보고 가기위해 그라나다에 들르게 되었구요.

전날 저녁 알함브라 궁전의 표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려하였는데, 다음날 표는 물론 두 달 뒤 표까지 모두 매진이더군요. 비수기 평일 이라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알함브라 궁전을 지나치고 그냥 갈 수는 없는데, 이를 어찌해야 할지..

그나마 다행이, 현장에서 당일 입장권을 몇백장 정도 판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침 8시에 티켓오피스가 문을 여는데, 이 표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글도 볼 수 있었구요.



늦게가면 표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새벽 6시

정도에 알함브라 궁전을 찾아 갔습니다. 이미 제 앞에는 60~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시간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가 되어 티켓 오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시간대별 남은 표가 실시간 카운트 되어 표시 되더군요. 꼭두새벽부터 부지런을 편덕에 다행히 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알함브라 궁전은 13~14세기 경, 스페인 지역을 지배했던 이슬람 왕조가 세운 궁전입니다. 건축물은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운데, 이후 그리스도교에 의해 이슬람 왕조가 스페인에서 물러날 때에도 차마 이 궁전을 파괴할 수 없어, 전쟁을 포기한 채 궁전을 고스란히 내어주고 물러났다는 일화도 유명하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스페인의 유명한 클래식 기타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타레가(F. Tarrega)가 알함브라 궁전을 다녀온 뒤 감상에 젖어 작곡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역시 유명하구요.

알함브라 궁전을 방문하기 전,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길래 그런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는 걸까..



알함브라 궁전에서도 가장 유명한 나사르궁에 입장했습니다. 입장권을 구입할 때 나사르궁의 입장시간을 선택하게 되는데, 해당 시간이 지나면 입장을 할 수 없을 만큼 인기 높은, 알함브라 궁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곳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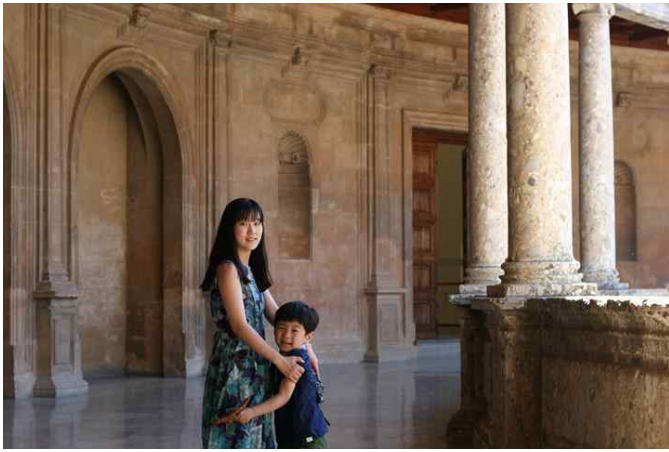
가보고 나서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정말 말문이 턱 막힐 만큼 아름다운 곳 이더군요. 그 웅장한 건축물의 거의 모든 곳에 세밀하고 아름다운 문양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요? 곤충의 기하학적인 건축을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요? 정말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 이었습니다.



이 궁전이 망가지는 걸 차마 볼 수 없어 궁을 그대로 내어주고 물러난 이슬람 왕조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뉘를 잃고 둘러보다 궁의 출구까지 갔다가, 아쉬운 마음에 거꾸로 되짚어 올라왔습니다. 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나사르궁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하나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지금 이 순간이 이처럼 행복하고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아주 진한 아름다움은 사람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만드나 봅니다. 집사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은 본적이 없어..’ 라고.

알함브라 궁전에서 단체관광을 온 여행객들을 보았습니다. 가이드는 시간에 쫓겨 켄 걸음으로 다니며 ‘이 궁전은 몇 년도에 어느 왕이 지었고, 재정이 어려워서 수십년 간 지연되다가.. 어찌구 저찌구...’ 빠른 말로 설명하느라 바쁘고, 뒤의 일행들은 넋을 잃고 멈춰서서 보다가 화들짝 놀라 떨어진 가이드를 따라가기에 바쁘더군요.

부디 알함브라 궁전을 찾게 된다면, 가이드는 떼어 놓구 오세요. 몇 년도에 어느 왕이 지었는지 모르면 좀 어때요. 여긴 보고 싶은 만큼 실컷 보다가 가야 하는 곳이거든요. 빠르게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쉬운 곳이라고 생각 합니다.



알함브라 궁전의 여운이 쉬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쉽지만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납니다. 가기 전에 알바이신에 올라 잠시 알함브라 궁전을 바라보는

시간도 가졌구요. 알바이신 언덕에 스페인의 전통민요를 연주하던 기타 연주자가 있길래, 내심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연주 해주길 기다렸는데 제가 떠날 때까지 결국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스페인의 최남단 휴양도시 말라가(Malaga)입니다만, 가는 길에 절벽 위의 도시로 유명한 론다(Ronda)에 들렀다 가기로 했습니다.



론다는 작은 도시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곳이었는데, 사진 한 장에 끌려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재미있는 일을 겪게 되었구요.

론다에서 맥도널드를 발견한 아들 녀석이 간식을 먹고 싶다며 조르길래 더위도 식힐 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사람과 저는 시원한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뒤에서 ‘주임님!’ 하고 한국말로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연히 저를 부르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저 론다에도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제 어깨를 툭 치는 겁니다! 뒤 돌아 보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H양 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뭐야, H씨가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어보니, 개인적인 여행으로 스페인에 왔다고 하네요. 론다는 포르투갈로 가기 전에 잠시 들른 경유지 였구요.

세상은 정말 지구촌(地球村)이라고 부를 만큼 좁다는 사실과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니 착하게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론다에서의 에피소드는 여행을 마친 뒤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들려주는 이야기 거리가 되었습니다.

약 300km에 달하는 스페인 남부의 해변을 ‘코스타 델 솔 (Costa del Sol)’ 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태양의 해변이라는 뜻이지요. 이곳 해안에서 배로 두어 시간이면 아프리카 모로코에 갈 수 있으니 열대성 기후에 가까운 곳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4월 말 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도 심심찮게 수영복 차림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변가 콘도에 숙소를 잡고 아이와 함께 바닷가로 나왔을 때, 너무 놀라서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잘 못 본 줄 알았어요. 저희 바로 앞을 지나가는 젊은 여자 두 명이.. 수영팬티 한 장만 걸치고 있었거든요.

‘뭘야, 미친 여자들인가?’ 놀란 마음을 진정 시키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니 여자들의 1/3 정도는 팬티만 입고 있고 있는, 탑리스(topless) 상태였어요. 태닝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영하

는 사람, 해변을 산책하는 사람 할 것 없이.. 젊은 여자는 물론 할머니와 꼬맹이들까지요!

그래서 한동안은 사진을 찍는 게 거북하더군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아들 녀석의 독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뜻하지 않게 남 보여주기 민망



한 사진이 찍히긴 했습니다.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아들 사진 속, 저 멀리서 걷고 있는 할머니도 팬티만 입고 계세요.

저희가 찾아온 이 해변이 누드비치는 절대 아니랍니다. 그냥 가족 단위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흔하디 흔한 해변이에요. 이후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여행하면서 해변의 탐리스에 무덤덤해졌는데, 생각해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얼굴을 제외한 온몸을 가리고 살아온 사람이 우리나라의 해운대를 여행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에그 망측해라, 여자들이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고 있잖아?’ 라고 하지 않을까요?

같은 논리로 생각해보면, 이곳 사람들에게 바닷가에서 가슴을

드리내놓고 별을 찍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는 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여간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



모처럼 취사가 가능한 숙소를 잡은 김에, 오랜만에 고기를 실컷 구워먹기로 했습니다. 집사람이 종이에 장보야 할 물건 목록을 적어주더군요. 소고기, 양파, 버섯 등등..

제법 커 보이는 슈퍼마켓을 찾아가 소고기를 찾았더니,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며 정육점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 스테이크 부위의 소고기를 1Kg 달라고 했더니 쓱쓱 잘라서 건네주더군요.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정도 했으니 어마어마하게 저렴했지요.

말라가에서 이틀을 보내고, 인근에 위치한 네르하(Nerja)로 이동했습니다. 이곳 역시 해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산토리니가 연상되는 하얀 집 마을로도 잘 알려져 있



구요. 스페인의 산토리니라고 불리는 곳이 네르하와 프리힐리아나 거든요. 네르하와 프리힐리아나는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도 되지 않아 보통은 한 번에 도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해변가 식당을 찾아 갔는데, 빠에야(볶음밥)를 굉장히 큰 팬으로 조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빠에야가 무한 리필 되는 식당이라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왔어요.



물놀이를 좋아하는 아들 녀석은 어제에 이어 오늘이 가장 신나는 하루 였습니다. 다만 또래 친구를 만나도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 하기는 하더군요. 이번 여행을 통해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겠지요.

터키에서도, 이곳 스페인에서도 인사말 정도는 가르쳐 주었는데, 나중에는 나라를 옮길 때마다 그 나라의 인사말을 물어와서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인사말 같은 건 저도 모

르겠더라고요.

다음날 발렌시아로 떠나기 전 플리힐리아나에 잠시 들렀습니다. ‘스페인의 산토리니’ 라는 말에 찾아와봤는데, 역시 진품을 뛰어넘는 가품은 없더군요. 아름다운 마을이기는 했지만, 산토리니에 비교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 꼬마기차도 타고,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보았습니다. 다만 마을이 너무 작아서 무언가를 할만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식사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거든요. 덕분에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졸졸 굶어야 했습니다.

원래 말라가를 떠나, 스페인을 시계방향으로 돌아 발렌시아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였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 카르타헤나라는 작은 도시에서 하루 묵어하기로 했습니다.

카르타헤나에는 해가 질 무렵 도착해, 그야말로 쓰러지듯 잠만 자고 다음날 일찍 발렌시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무인주유소를 이용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집을 먹고 가격이 비싼 유인주유소에서만 기름을 넣었는데, 큰맘 먹고 한 번 도전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쉽더라고요. 너무 간단해서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간단했어요, 심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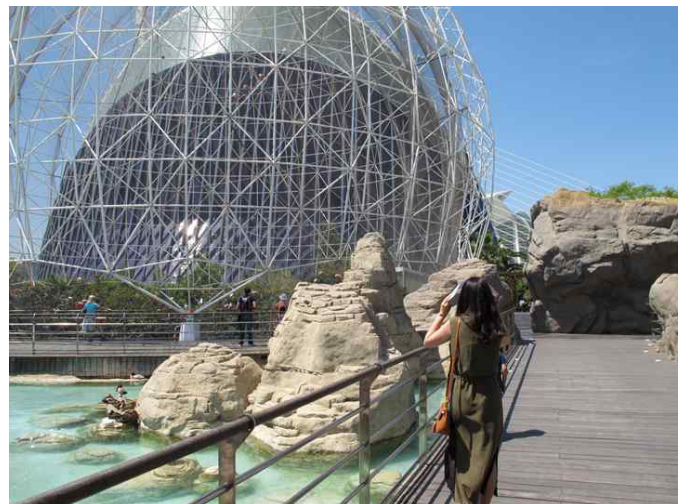
유럽은 고속도로 정산소도 그렇고, 주유소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유인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주유소를 이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기도 했지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였습니다.

- 1) 주유구를 열고 주유를 합니다.
- 2) 원하는 금액(리터)이 되면 주유를 멈춥니다.
- 3) 주유소 카운터(보통은 매점을 겸하고 있음)에 가서 주유기 번호를 말하고, 계산을 합니다.

대부분 위와 같은 후정산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주 가끔 예외적으로 1) 신용카드를 주유기에 먼저 삽입하고 2) 주유 후 3) 주유기에서 결재를 끝내는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중요한 건 휘발유와 디젤을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는 점이었구요. 스페인에서는 휘발유(Gasoline)와 디젤(Disel)이 영어로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 굉장히 난처했었습니다.



드디어 발렌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도시에는 8월에 오고 싶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마토 축제가 8월 말, 이곳

발렌시아에서 열리거든요. 미친 듯이 토마토를 집어던지고, 소방차 물호스로 샤워를 하는 멋진 경험을 해보고 싶었지만.. 여정과 동선을 맞추다 보니 아쉽게도 5월 초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발렌시아 역시 근사한 구시가지(Old Town)가 있지만, 오늘은 일단 오세아노 그래픽(Oceano Grafic) 이라는 아쿠아리움을 찾았습니다. 오늘이 5월 5일, 한국의 어린이날 이었거든요. 오늘 하루 만큼은 아들 녀석이 좋아할 곳에 가고 싶었어요.

이 곳의 규모는 유럽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장료도 무지막지하게 비싸더군요. 그래도 모처럼 아들 녀석이 신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돌고래쇼에 앞서 큰소리로 울려 퍼진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스페인 사람들이 떼로 말춤을 추는 모습에 큰소리로 웃기도 했구요. 그 춤을 제일 잘 춘 사람에게 돌고래 먹이를 주게 하더라구요.



발렌시아의 숙소 역시 취사가 가능한 아파트를 빌렸기에 쌀과 고기, 과일 등 잔뜩 장을 봐서 돌아왔습니다. 식당에서 먹는 음식보다 집사람이 해준 밥과 고추장에 찍어먹는 고기와 양파가 더 맛있었어요. 이따금 이렇게 보충을 해주지 않았다면 체력이 떨어져 여행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날 아파트 매니저가 주요 포인트를 체크해준 관광지도를 들고 구시가 구경을 나섰습니다. 발렌시아는 구시가가 실질적인 중심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공서와 금융기관이 대부분 구시가 중심에 몰려 있더군요. 오랜만에 씨티은행을 찾아가 현금도 넉넉히 인출해두었습니다.

구시가는 한나절 산책하며 둘러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한여름, 토마토 축제가 벌어지면 이 구시가 곳곳이 붉은 토마토

빛깔로 얼룩지게 되는걸까요?



중양 시장에서 과일도 사고, 사람 사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스페인의 어딜 가나 하몽은 빠지지 않는군요.



큰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느긋한 기분으로 여유를 즐겼습니다. 구시가의 끝 쪽에 투우장이 있어 가보았는데, 마침 투우경기가 열리는 날이더군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 큰맘 먹고 들어가려 했는데, 아들 녀석이 울상이 되어 절대 안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소를 괴롭히는 건 나쁜 행동이라는데, 뭐라 설득할 말이 없더라고요.

발렌시아를 떠나 스페인의 마지막 여행지,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7일간 머물 예정이라 단기 임대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파리도 그렇고, 세계적인 관광지에서는 단기 임대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아니라 일(日) 단위, 주(周) 단위로 임대를 할 수 있어요.

호텔처럼 간판이 붙은 것도 아니라 찾아가기는 힘든 편인데, 현지인들이 사는 평범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라 여행과 일상의 중간 지점에서 재미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짐을 내려놓고, 열흘간 이용한 렌트카를 반납하기 위해 산츠(Sants)역에 있는 AVIS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한시간 정도 후에 돌아왔더니 아들 녀석은 곤히 낮잠을 자고 있고, 집 사람은 바르셀로나 지도에 주요 포인트를 표시하고 있네요.

여행이 두 달 쯤 접어들며 생활 패턴이 잡힌 것 같습니다. 새

로운 여행지에 도착하면 1) 일단 짐을 풀고 2) 가까운 마트에 가서 물과 식료품을 삽니다 3) 빨래를 하고 4) 다음날 볼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5) 그 다음날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를 재운 뒤 사진을 정리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6) 그리고 다음 여행지의 숙소를 예약 합니다.

여행이 일상이 되어, 위와 같은 일을 147일 동안 반복한거죠.



바르셀로나의 숙소는 집사람이 고심 끝에 예약을 했는데, 정말 잘 골랐다고 한참을 칭찬해주었습니다. 주요 관광 스팟이 모여 있는 람브라스 거리의 끝에 위치해 있어, 거의 매일 걸어서 관광을 다녔고, 아파트가 작은 광장 구석에 붙어 있어 이런 저런 소규모 행사가 자주 열려 집을 나서자마자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또 근처 베이커리의 빵은 어찌나 맛있던지! 머문 곳이 마음에 들다보니 바르셀로나를 좀더 여유롭게 살펴볼 수 있었고, 또 많은 정이 들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도시는 어디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가



장 찾아보고 싶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도시로 바르셀로나를 꼽은 거지요. 그런데 정작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자신들을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바르셀로나는 까탈루냐 지방의 대표 도시인데, 역사적으로 스페인과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고, 그래서 스페인의 다른 지역과 달리 고유의 언어(까탈루냐

어)를 갖고 있어요. 집집마다 스페인 국기가 아닌 까탈루냐 기(旗)를 걸고 있구요. 그러한 정서 때문에 최근까지도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제가 여행하던 중에도 ‘까탈루냐에 자유를! (Freedom for Catalonia!)’ 이라고는 문구를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가우디(Antoni Gaudi)의 도시라고 하지요. 가우디가 설계하고 건축한 건물을 바르셀로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오로지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여행을 오기도 한다지요.

집에서 조금 걸어 내려오면 ‘까사 밀라’와 ‘까사 바뜨요’가 나옵니다. 까사밀라는 천막을 쳐놓고 수리를 하는 중이라 까사 바뜨요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해골을 연상시키는 특이한 모양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고 하지요. 가우디의 초기 건축물은 당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다고 합니다. 까사 바뜨요를 비



롯한 많은 건축물이 ‘괴상하다’ 혹은 ‘기괴하다’는 평을 받으며,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기도 했으니깐요. 저 역시 그 당시 사람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지, 이 괴상한 아파트를 왜 그리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토니 가우디가 바르셀로나 시립건축전문학교를 졸업할 때, 학장(에리아스 토헨트)이 졸업장을 내어주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지금 우리가 건축사 학위를 천재에게 주는 건지, 미친놈에게 주는 건지 모르겠다’ 라구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가우디의 작품을 본 건 까사밀라를 비롯한 초기 작품부터 구엘공원, 그리고 그의 유작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까지, 그의 건축 순서와 비슷한 순서였는데.. 그가 어째서 천재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는지 온 마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는 여행 순서에 맞춰 차차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람브라스 거리를 따라 걷어가는 길, 거리 곳곳에서 불법으로 이미테이션 상품(이른바 짝퉁)을 파는 흑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나타나면 재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보자

기의 네 귀퉁이에 끈을 묶어 놓았습니다. 저들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불법 체류자라고 해요. 저걸로 먹고 살수는 있는지, 쓸데없는 걱정도 듭니다.



그 지역의 시장을 구경하는 건 빼놓을 수 없는 일이지요. 보케리아 시장까지 걸어온 김에 한 바퀴 둘러보고, 마침 점심 무렵이라 간단히 요기도 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유행을 한건지 모르겠지만, 유럽 어느 지역을 여행하더라도 동양식 볶음면(fried noodle) 가게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워투웍(Wok to Walk)이라는 가게는 체인점이었는지, 다른 나라를 여행하던 중에도 몇 번 더 보았어요.

국수의 종류를 고르고, 소스를 고르고, 들어가는 재료(고기 종류)를 고르면 5~10분 정도 뒤, 종이 그릇에 주문한 볶음국수를 내어 줍니다. 현지인들은 대부분 포크로 식사를 하는데, 저희 가족이 보란 듯이 나무젓가락을 ‘딱’ 하고 쪼개니 여기저기서 힐끔거리는 눈빛이 보이더군요.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편인데 괜히 긴장하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소소한 물품까지 잘 챙겨왔다고 생각했는데, 딱 한가지 챙겨오지 못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바로 젓가락 이었습니다. 아파트처럼 취사가 가능한 숙소에서 고기라도 구워먹으려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면 젓가락 생각이 간절하더라구요. 포크로 대신 하자니 감질맛 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젓가락을 파는 곳은 없고. 워투웍에서 맛있게 식사를 한 뒤 젓가락을 버리지 않고 챙겨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몬주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명물 분수 쇼를 보기 위해서요. 늦게가면 자리가 없다길래 일찌감치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만 한참 떨어진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서둘러 자리를 옮겨 그나마 나쁘지 않은 자리에 비집고 들어가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분수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이렇게 여행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도시에서 일주일을 머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그동안 쫓기듯 여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에서는 실컷 늦잠도 자고, 슈퍼마켓에서 커다란 아이스크림과

상그리아(스페인 과실주)를 사와 하루종일 빈둥거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보니 여행을 시작한 이후 단 하루도 쉰 날이 없었네요. 여행 자체가 휴식이라고 생각했던 탓일까요? 사실은 군 현역 시절 행군을 떠올릴 만큼 힘든 날도 많았는데..

모처럼 달콤한 휴식을 즐기며, 어슬렁 어슬렁 동네 구경을 다녔습니다.

스페인까지 왔는데, 스페인의 전통춤 플라멩고를 보고 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의무감에 짧은 공연도 보았습니다. 여행 인포메이션센터에서 추천해준 ‘저렴하고 괜찮은 플라멩고 공연’을 보고 왔어요.



다음날은 가우디의 작품 중 하나인 구엘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열렬한 후원자인 구엘백작의 대지에 귀족들을 위한 대규모 저택들을 세우려 했는데, 입주자를 찾지 못해 자금난을 겪다 결국 완성은 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후에 시의회에서 부지를 포함한 건축물을 매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우디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곡선’과 ‘모자이크’ 그리고 ‘자연에서 얻은 모티브’라 할 수 있습니다. 구엘공원 역시 그러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결처럼 곡선으로 펼쳐진 벤치라던가, 깨어진 타일조각을 붙여 화려하게 꾸민 모자이크를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구엘공원을 대표하는 도마뱀 앞에서 가족사진을 남겨보았습니다. 서양인 노 부부가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 하더니, 이어서 저희 사진도 찍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사람들이 늘 북적거리는 곳인데, 다행히 한적한 사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파도와 야자나무를 형상화 한 회랑도 구엘공원을 대표하는 조형물입니다.



구엘공원은 몇 년 전까지는 무료로 개방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며 공원의 일부가 유료화 되었는데, 무료로 개방된 곳 역시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오히려 그곳으로 피크닉을 오는 것 같았구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집 근처 시장에 들렀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다시 한 번 여행가고 싶은 도시로 바르셀로나를 꼽았는데, 심심할 틈이 없을 만큼 소소한 볼거리가 많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대성당과 인근의 고딕 지구와 보른지구는 고풍스러운 골목도 볼만하고, 가죽공방을 비롯해 구경할만한 상점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와이프도 가죽공방에서 근사한 솔더백을 무척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10~15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광물과 화석을 판매하는 상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서, 호기심에 암모나이트와 삼엽충 화석을 몇 점 구입했는데, 덕분에 한국으로 돌아온 뒤 아들 녀석이 유치원에서 일약 인기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성당에서 10여분 걸으면 까탈루냐 광장이 나와요. 바르셀로나에 머무는 동안 거의 매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비둘기가 어찌나 많은지 아들 녀석에게는 거의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오래 머문 도시일수록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머물렀던 바르셀로나도, 한달을 머물렀던 프랑스의 파리도, 눈을 감으면 집 근처의 골목 골목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기억나고, 저도 모르게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대성당 앞에 전통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다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오늘이 무슨 특별한 기념일인가?’ 궁금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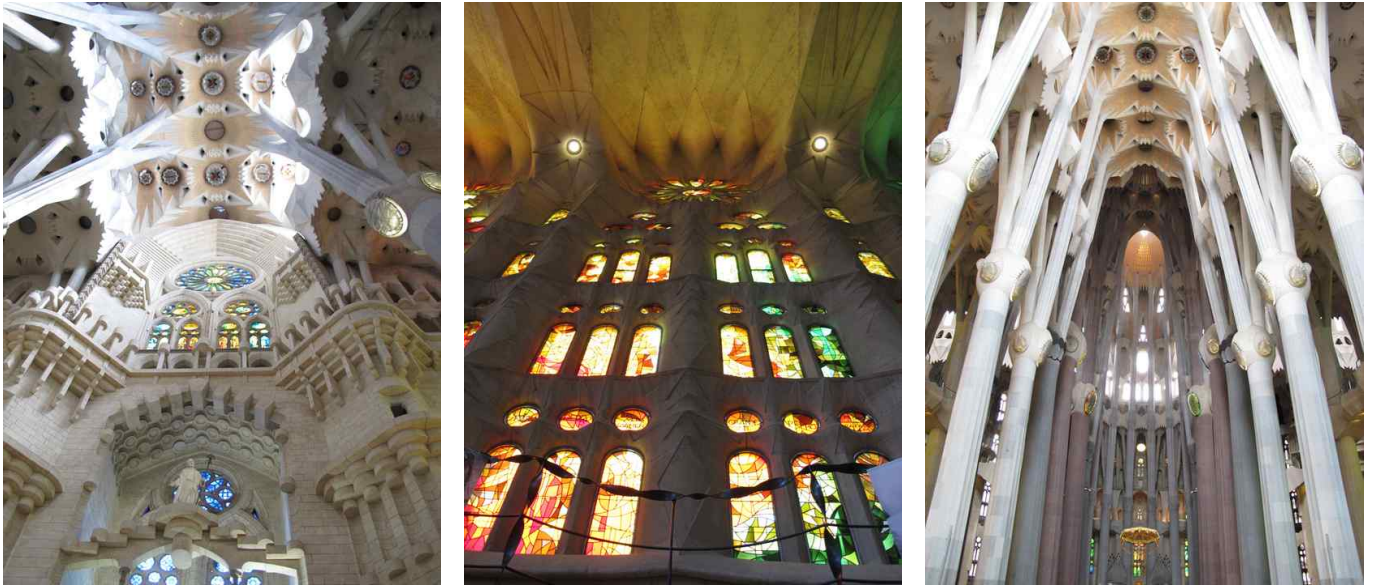
집으로 돌아오니, 집앞 광장에서 거대한 인형들을 앞세운 퍼레이드가 출발하고 있더군요. 무어인, 십자군, 성기사, 성모님 까지.. 인터넷 검색을 해도 알 수가 없어 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어인을 스페인 대륙에서 몰아낸 기념일? 혹은 카톨릭 관련 축일? 오늘은 대체 무슨 날 인걸까요?



바르셀로나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가우디의 역작,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성 가족성당)’을 찾아 갔습니다. 와이프가 여행 중 입을 일이 있을거라며 챙겨온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물세탁이 가능한 천이라 이후에도 종종 입을 일이 있었지요. 지하철에서 올라오니 가우디가 완성한 ‘탄생의 파사드’가 눈에 들어 옵니다.



가우디가 사그라다 파밀리에 성당을 짓지 않았더라면, 그의 천재성을 과연 세상에 입증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건축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우디가 자신의 광기와 열정, 그리고 일생을 얼마나 이 성당에 쏟아 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성(聖)가족 성당'을 의미 합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가족'이란 예수님과 성모님, 성요셉을 가르킵니다. 이 성당이 세워지게 된 계기는 1800년대 말, 산업화로 점차 타락해 가는 현대사회를 구원코자 하는 바램에서 출발 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성당에 모여 기도하고, 정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 한 것이지요.

1882년 최초의 설계를 담당했던 사람은 가우디의 스승인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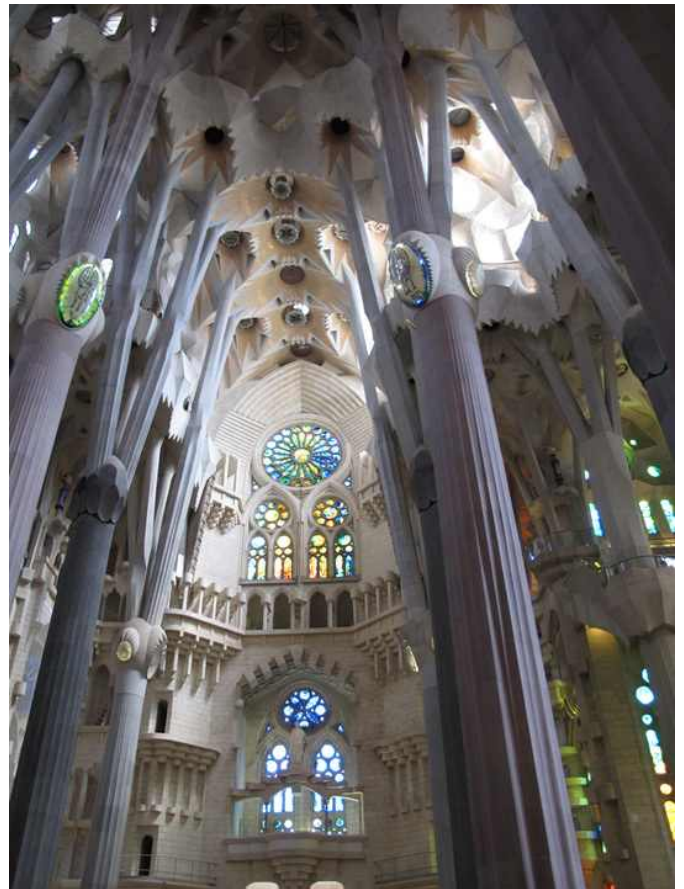
가 빌랴르 였습니다. 당시 교구의 여러 건축에 참여 했던 그는, 좋은 취지의 성당 건립 계획에 보수도 사양한 채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구의 건축 담당자와의 불화로 (교구에서 빌랴르에게 부족한 성전 건축비 문제로 무조건 싸게 지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겨우 지하 카타콤의 건물기둥만 지은 시점에서 작업을 포기하고, 제자 가우디를 후임으로 추천합니다.

교구에서는 젊은 건축사(가우디)를 새로운 후임으로 뽑으며, 이제 자신들의 요구대로, 성당이 저렴한 예산으로 신속히 건립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맙니다. 가우디는 스승의 설계를 전부 백지로 돌리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이 설계를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신이 머무는 곳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초기 교회에서 기도를 드렸던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평면도는 라틴 십자형으로 다섯 개의 회랑과 바실리카

양식의 회랑 세 개를 만들 것입니다. 세 개의 정문을 갖추고, 다섯 개의 회랑에 상응하는 다섯 개의 입구를 갖출 것입니다. 그리고 양 옆문에는 다섯 개의 회랑에 상응하는 세 개의 입구를 만들 것입니다. 각 정문에는 네 개의 탑이 설치 되고, 삼 면에서 열두 사도를 표현할 것입니다. 교회는 돔에서 비추는 빛과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조화되어, 아름다움이 넘쳐흐를 것입니다. 영광된 빛이 교회안의 색채를 밝게 비추겠지요. 이 교회는 종교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넓게 열려진 공간이 될 것입니다.'



74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성전 건축에 쏟아 부은 40여 년..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마저 성전 건립에 바치며 모든

것을 이 성당에 쏟아 붓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 오고 있음을 예견하고, 또한 자신의 손으로 성당 건립을 마무리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슬프게도 내 손으로 성가족 성당은 완성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 뒤를 이어 완성시킬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회는 장엄한 건축물로 탄생하리라. 시대와 함께 유능한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남기고 사라져 갔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은 빛을 발한다. 대제단, 사스토레스가의 작은 교회, 성테크라 교회에서도 여러 양식이 쓰였지만, 조화롭고 아름답다. 많은 예술가들이 형태와 양식의 다양함 속에서도 통일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우디의 작품 곳곳에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볼 수 있듯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에서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에서 모티브를 찾은 다른 작품들처럼 성당 내부의 디자인은 나무, 꽃잎과 같은 자연을 닮아 있습니다.

혹시 이전의 가우디의 작품들은, 이 성당을 건립하기 위한 연습과정이었을까요?

이스탄불의 아야 소피아 성당에서 느꼈던 감동을 이곳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다시 한 번 느낍니다.

'1500년 전 당신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남겨 놓았 듯 지금의 우리는 이렇듯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주고 싶습니다. 이 성당이 지어지고 있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가우디는 생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쇠약한 인간이며, 손상된 인간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신을 위해 사용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말년에는 건축을 제외한 모든 걸 멀리한 채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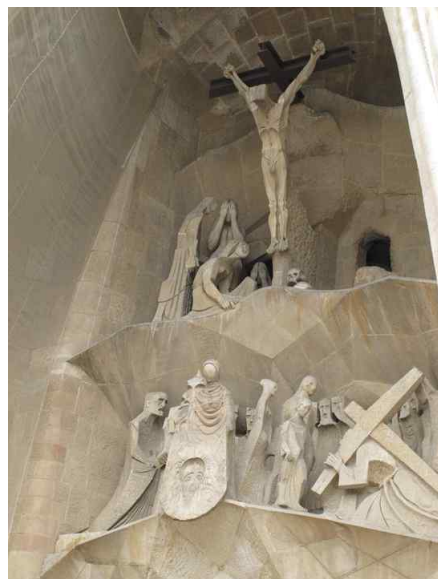
전차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에도 부랑자와 다름 없는 그의 행색에 아무도 그가 '거장 안토니 가우디'임을 알아 보지 못한채 빈민병원으로 옮겨져, 사흘 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해는 교황청의 특별한 배려 아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지하 카타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성당의 외부 삼면은 각각 예수님의 탄생과 수난, 그리고 영광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가우디는 생전 탄생의 파사드만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완성했던 부분과 다른 건축가의 파사드를 비교해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되지요.

파사드는 성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탄생의 부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천사들로부터 성탄 소식을 듣는 목동들, 그리고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박사의 모습이 새겨 있습니다.



가우디 사후 제작된 수난의 파사드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박히심이 새겨

있는데, 조각의 형태부터 가우디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 됩니다.



성당 지하에는 건축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있노라니,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절로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페인을, 바르셀로나를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 이 도시, 정말 매력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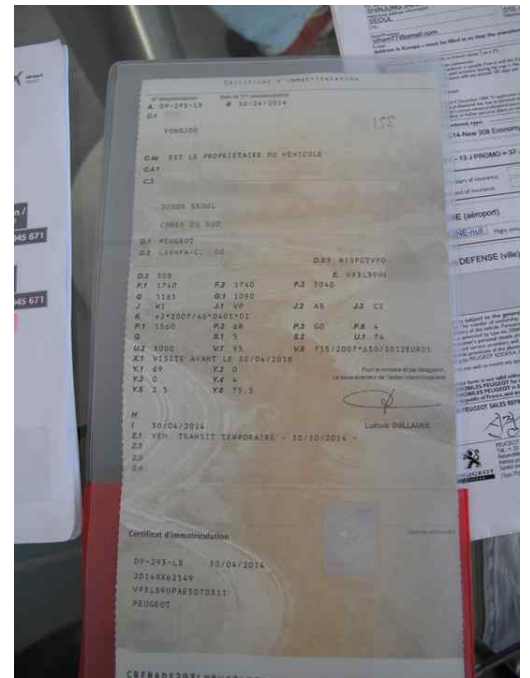
이제 스페인의 일정을 끝내고, 예약해놓은 푸조 리스(lease) 차량을 찾아, 50일 간 유럽을 한바퀴 돌 예정입니다. 만만찮은 강행군이 될 것 같네요.

지하철을 타고 바르셀로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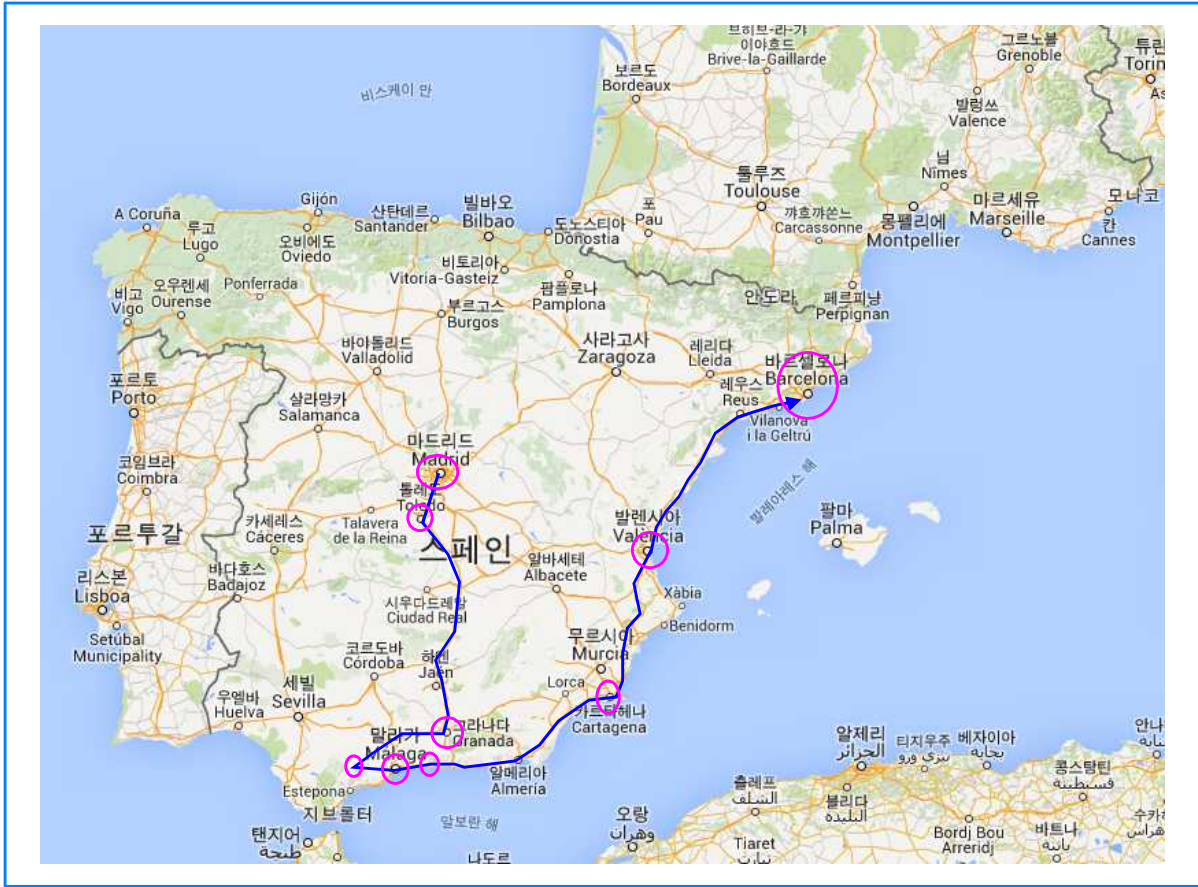
항 근처의 배송대행사무실에 찾아가 제 차를 찾아왔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제 이름을 보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비싼(?)차를 소유해본적이 없었는데..

출고 후 제가 첫 주인이 되는 새차라 총주행거리가 5km가 채 되지 않더군요. 빨간색 번호판은 리스 차량을 의미하고, 파란 유럽연합기 아래의 'F'는 등록국가가 프랑스임을 뜻하지요.



숙소로 돌아오니 테라스에서 집사람과 아들 녀석이 저를 보며 손을 흔들고 있네요. 이제 드디어 유럽 일주를 시작합니다!



[스페인에서의 여정 - 총 이동거리 2,000km]